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41호 【루계 제23458호】 주체100(2011)년 5월 21일 (토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대표단이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대표단이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선물을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부주석인 진종흥단장이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0일과 12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이따르—따쓰통신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구장양어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현대적으로 꾸려진 양어장에서 많은 물고기를 인민들에게 공급해주고있는데 대하여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나라의 풍부한 물자원을 리용하여 양어를 전군중적운동으로 계속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민물고기의 생산성을 끊임없이 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양어를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체스꼬주체사상연구 및 구현소조와 백두산체스꼬조선친선협회 인터네트공동홈페지 《조선—백두산》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라오스통신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기네국내방송, 국제방송, 7개민족어방송은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조선인민군종합체육관 개관식이 진행된 소식을 보도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라오스통신과 이란신문이 9일과 10일에 보도하였다.

라오스통신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조선인민군종합체육관 개관식이 진행된 소식을 전하였다.

통신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웅장화려하게 건설된 종합체육관의 외부와 내부를 보시고 군인건설자들이 짧은 기간에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는 또 하나의 위대한 창조물을 훌륭히 일떠세운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자랑찬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으며 조선인민군 체육단들이 진행하는 개관경기를 관람하신데 대하여 상세히 지적하였다.

통신은 또한 김정일령도자께서 평양시내 경공업공장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평양방직공장, 락랑봉화피복공장, 봉화비누공장, 평양수지연필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전하였다.

이란신문 《이란 뉴스》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평양시내 경공업공장들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보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주체사상보급활동을 과감히 벌려나가자

삐루주체사상전국토론회 진행

21세기의 자주화에 관한 삐루주체사상전국토론회가 12일 깔랴오국립종합대학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에는 삐루 김일성주의연구소조, 김정일장군 삐루친목회, 삐루 김정숙동지혁명활동연구협회, 공산당(붉은 조국), 공산당, 주체선군정치연구 삐루—조선친선협회,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 삐루위원회, 깔랴오국립종합대학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삐루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 조선사회과학자협회대표단이 여기에 초대되였다.

토론회에서는 주체선군정치연구 삐루—조선친선협회 위원장 로베르또 까르보넬 삐쏘를 비롯한 여러 인사들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시고 경애하는 김정일각하께서 발전풍부화시키시는 주체사상은 수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널리 연구보급되고있는 사람중심의 사상이라고 찬양하였다.

그들은 민족적독립과 나라의 자주권을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의 수많은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주체사상을 지침으로 삼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오늘날 제국주의자들이 주권국가들에 대한 무력간섭도 서슴지 않으면서 조선에 대해서만은 감히 어쩌지 못하고있는것은 바로 이 나라가 주체사상에 기초한 선군정치를 실시하고있기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은 위대한 주체사상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됨으로써 누구나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참된 삶을 누리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 선군정치로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이 굳건히 지켜지는 강국이라고 그들은 격찬하였다.

그들은 삐루도 제국주의의 간섭을 반대하고 자주적으로 발전하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로 되게 하기 위하여 모두다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가자고 호소하였다.

토론자들은 2012년 4월 평양에서 진행되는 주체사상세계대회를 준비있게 맞이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자

구장양어장 종업원궐기모임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구장양어장 종업원들의 궐기모임이 20일에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평안북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리만건, 관계부문 일군들, 양어장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지배인 박승길의 보고에 이어 로동자 성호영, 최은혜, 박명길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자기들의 일터를 찾으시여 양어장의 현대화를 훌륭히 실현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고 건설자들과 종업원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해주시였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물고기생산을 급격히 늘일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은것은 자랑할만 한 성과이라고 하시면서 나라의 양어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과업들을 제시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은 양어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는데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된다고 하면서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새세기의 요구에 맞게 양어장이 현대적으로 꾸려진것만큼 칠색송어, 철갑상어를 비롯한 물고기기르기에 힘을 넣어 양어를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과시하는데 앞장설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먹이를 적게 먹으면서도 빨리 자라는 우량품종의 물고기종자들을 적극 연구하고 대대적으로 길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물고기의 생리적특성에 맞게 어종을 배치하고 양어장의 면적을 립체적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며 먹이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양어공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이며 양어장을 사회주의선경으로 훌륭하게 꾸려나갈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물고기를 먹이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가슴깊이 새기고 양어사업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군민단결의 불패의 위력을 다시한번 힘있게 과시

고원—함흥사이 도로포장공사를 완전히 끝냈다

고원—함흥사이 도로포장공사가 완전히 끝남으로써 군민단결의 불패의 위력이 다시한번 힘있게 과시되였다.

지난 3월 중순 착공의 첫삽을 박은 인민군군인들과 함경남도의 인민들의 헌신적투쟁에 의하여 몇년은 실히 걸려야 한다는 방대한 고원—함흥사이 도로개건확장공사가 마지막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원—함흥사이의 도로개건확장공사가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빠른 시일안에 공사를 끝낼수 있는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고 공사를 다그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도로는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도모하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고원—함흥사이 도로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건확장되면 이 일대가 더욱 아름답게 변모되고 교통문제가 보다 원만히 풀리게 되며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게 된다.

당의 전투적호소에 산악같이 일떠선 인민군군인들과 함경남도의 인민들은 공사기간 무비의 희생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하며 완공의 날을 앞당기기 위한 불꽃튀는 전투를 벌리였다.

공사지휘부의 일군들과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은 전투조직과 지휘를 빈틈없이 짜고들어 전반적공사속도와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인민군군인들은 공사전기간 가장 어렵고 힘든 도로구간들을 도맡아 해제끼였다.

인민군군인들은 전탄다리와 함주다리 개건확장공사를 맡아안고 완강한 돌격전을 벌려 짧은 기간에 다리들을 종전보다 넓고 시원하게 뽑아놓았다.

인민군군인들은 도로개건확장공사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구간인 금야군과 정평군의 구배와 곡선이 심한 령길들을 자진하여 맡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나가면서 대중적영웅주의를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인민군군인들의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우며 함주군과 정평군의 인민들이 공사에서 불굴의 헌신성을 높이 발휘하였다.

당의 부름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인민군군인들과 도안의 인민들은 60여만㎥의 성토 및 절토작업, 25여만㎥의 흔석깔기와 다짐, 30여만㎡에 달하는 모래와 자갈운반을 비롯한 방대한 작업과제를 해제끼고 근 70만㎡의 도로콩크리트포장을 5월 18일현재 완전히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함경남도당위원회에서는 도로개건확장공사전기간 대중의 무궁무진한 정신력과 창조력을 최대로 폭발시키며 공사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도에서는 이번 공사에 화물자동차와 굴착기, 혼합기, 다짐기를 비롯한 륜전기재들과 설비들을 총동원하고 만가동을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인민군군인들과 도의 인민들은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도로량옆을 따라 가로수심기를 끝낸데 이어 꽃밭조성, 경사면잔디입히기, 위험방지석 및 도로표식기제작설치를 기한전에 끝내기 위한 힘찬 돌격전을 벌리고있다. 군민의 헌신적투쟁으로 멀지 않아 수백개소에서의 옹벽공사와 수통, 암거공사도 완전히 끝나게 된다.

공사기간 인민군군인들과 도안의 인민들은 창의창발성을 높이 발휘하여 새로운 공법들을 대담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수많은 로력과 자재를 절약하고 공사기일을 앞당기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어렵고 방대한 도로개건확장공사에서 원민, 원군미풍이 높이 발휘되였다.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은 치렬한 전투가 벌어지는 공사장들마다에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리면서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군민단결의 힘이 얼마나 위력한가를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이번 공사과정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당의 령도가 있고 군민단결의 위력이 있는 한 세상에 두려울것이 없고 승리는 언제나 우리의것이라는 귀중한 진리를 다시금 심장깊이 절감하였다.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창조물인 고원—함흥사이 도로개건확장공사가 끝날날은 멀지 않았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박동석

승리의 기상

◇ 지금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에서 작업반, 분조, 농장원들호상간의 경쟁열풍이 세차게 일어나고있다.

《농장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과 알곡증산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는 사회주의경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확실히 경쟁은 혁신이고 발전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펴주신 사회주의경쟁의 불씨가 세차게 타번지도록 하는데서 우리 단위가 제일 앞장서나가겠다.》… 이것이 어찌 이 단위에서만 높아지는 경쟁열의라고 하겠는가.

경공업, 농업전선을 비롯하여 나라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이 경쟁을 걸고 승리의 결승주로로 기세좋게 나아가고있다. 너도나도 승자가 되려는 우리 인민의 씩씩하고 도도한 기상, 바로 여기에 강성대국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우리 조국의 활력에 넘친 모습이 있다.

◇ 사회주의경쟁은 강성번영할 조국의 래일을 확신하는 우리 인민의 승리의 기상이 힘있게 나래치는 대중적혁신운동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승리에 자만하지 않고 난관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질입니다.》

몇해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에서도 사회에서도, 경제부문에서도 문화예술부문에서도 경쟁의 불길속에 시시각각 놀라운 혁신들이 일어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이것은 사회주의 우리 조국에서만 있을수 있는 승리의 기상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쟁은 우리 인민의 높은 창조적열정과 기질에 맞는 투쟁방식이다.

우리 인민은 천리마대고조시기에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증산경쟁의 열풍으로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하였다. 오늘은 앞선 단위들이 장훈을 부르면 대담하게 도전하여 빅장훈을 부르며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우리 조국땅에서뿐아니라 세계무대에서도 모든것의 패권을 쥐며 지식경제시대의 전렬에 서겠다는 자신만만한 투지와 배짱을 안고 최첨단을 돌파해나가는것이 우리 인민의 투쟁기풍이다. 소극과 보수, 침체와 답보를 허용하지 않고 집단주의적인 경쟁으로 대고조의 폭풍을 안아오는 비상한 창조본때,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며 완강히 돌진하는 강한 민족적자존심, 바로 여기에 우리 인민의 승리의 기상이 있다.

◇ 승리의 신심드높이 생산돌격과 증산경쟁의 열풍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껴야 한다.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이 다가오고있다. 우리가 점령해야 할 목표는 비상히 높고 투쟁과업은 방대하다. 그러나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들에게는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 강성대국의 대문은 우리의 경쟁주로에 있다.

오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끊임없는 현지지도강행군길을 걸으시며 우리 인민들의 발걸음에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시고 승리의 봉우리에로 우리모두를 불러주신다. 경공업, 농업부문과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비롯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대고조진군에 새로운 박차를 가하며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야 한다. 경쟁속에 정신력발동의 묘술이 있고 집단적혁신의 열쇠가 있다.

모두다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며 뜻깊은 2012년에 승리자의 영예를 안고 강성대국의 대문에 떳떳이 들어서자.

인민소비품생산가지수를 2배 늘였다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서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서 인민소비품가지수와 생산이 늘어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로력투쟁에 의하여 인민소비품의 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2배로 늘어났으며 생산실적이 훨씬 높아졌다.

일군들은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의도에 맞게 대중을 적극 불러일으키면서 원료, 자재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고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 자기들이 생산한 인민소비품을 보여드리는 영광을 지닌 생필직장의 로동계급이 계속 혁신의 한길로 내달리고있다.

이곳 로동자, 기술자들은 올해에 들어와 제품의 가지수를 부단히 늘이고 밥그릇, 국그릇, 접시, 여러종의 수지통을 비롯한 인민들의 기호와 생활상편의에 맞는 제품들을 생산하여 좋은 호평을 받고있다.

생산1, 3, 4작업반의 생산자들은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안고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으며 모양연구실에서는 형타들을 현대화하여 제품의 질을 높이게 하고있다.

직장에서는 20여건의 합리적인 기술혁신안들을 창안도입하고 10여대의 설비들을 개조하여 생산능률을 부쩍 올리였다.

뇨소, 분쇄, 석고, 류안직장을 비롯한 여러 직장들에서도 각종 형타들을 제작하여 생필직장에 보내줌으로써 인민소비품의 가지수와 생산을 늘이는데 이바지하였다.

본사기자

10만세대 살림집건설장에 더 많은 통나무를

랑림림산사업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산림자원은 나라의 만년대계의 귀중한 재부이며 오늘 목재생산을 높이는것은 인민경제발전의 절실한 요구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웅대한 수도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랑림림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건설에 필요한 통나무를 더 많이 생산보장하기 위하여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사업소의 일군들은 통나무원천이 많고 사이나르기, 마감나르기조건이 유리한 장성, 덕우대작업소들에서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건설에 필요한 수만㎥의 통나무를 생산보장하도록 대책을 세우고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사업소의 일군들은 기계톱과 부속품들, 륜전기재와 로동보호물자들을 장성, 덕우대작업소들에 우선적으로 보내주면서 로동자들의 생산 및 생활조건들을 원만히 보장해주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사업소적인 지원과 방조속에 장성, 덕우대작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건설장에 보내줄 통나무를 제때에 생산보장하기 위한 헌신적투쟁을 벌렸다.

지배인 손성진동무를 비롯한 림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장성, 덕우대작업소의 일군들, 로동자들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를 들고 산판들에서 결사관철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건설장에 보내줄 통나무생산에서 자랑찬 로력적위훈을 떨쳤다. 또한 이들은 산지토장들마다에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통나무들을 지체없이 철도역들에 실어내는 마감나르기전투의 성과를 더욱 확대해나가고있다.

장성, 덕우대작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3개의 다리건설공사를 하고 수km의 운재길을 새로 냈으며 도로보수공사를 스스로 맡아 해제끼면서 마감나르기에서 혁신을 일으키였다.

사업소의 일군들은 랑림호의 물길로 통나무를 운반하기 위한 작전도 펼치였다. 림산사업소의 류벌작업소일군들과 로동자들은 한번에 천여㎥의 통나무들을 끌어올수 있는 끌배의 수리정비를 완전히 끝내고 통나무들을 끌수 있는 만단의 준비도 갖추어놓았다.

장성, 덕우대작업소, 류벌작업소들을 맡고 내려간 사업소의 일군들은 지형조건을 리용하여 사이나르기, 마감나르기에서 더 큰 경제적실리를 얻기 위해 머리를 쓰면서 걸린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는 일을 예견성있게 내밀고있다.

사업소일군들의 빈틈없는 작전과 능숙한 지휘, 로동자들의 드높은 혁명적열의와 결사관철의 투쟁으로 하여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건설장에 보내줄 통나무생산실적은 계속 오르고있다.

특파기자 동세웅

김일성조선의 100년, 승리와 기적의 력사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오늘 우리의 사회주의는 강성대국을 향하여 질풍같이 나아가고있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전체 군대와 인민이 대혁신, 대비약의 폭풍을 일으키고 곳곳에서 강성대국의 승리를 예고하는 대경사들이 일어나고있다.

필승의 신심드높이 뜻깊은 2012년을 향하여 전진하고있는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과 경모의 정에 넘쳐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이 땅우에 인민의 리상과 념원을 실현해주는 사회주의제도를 세워주시고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신 절세의 위인이시다. 세기와 세기를 이어 주체로 존엄높고 선군으로 강위력한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어버이수령님의 최대의 애국유산이다.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만년재보로 틀어쥐고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한 김일성조선으로 끝없이 빛내여나갈것이다.

1

지구상에 첫 사회주의국가가 출현했던 때로부터 9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 기간에는 세계사회주의위업이 힘있게 추진되던 시기도 있었고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된 때도 있었으며 사회주의재생운동이 힘차게 벌어진 나날도 있다. 제국주의자들과 사회주의배신자들이 동유럽사회주의의 붕괴를 놓고 《사회주의의 종말》을 떠들고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에 대하여 반신반의하던 때로부터도 근 20년이 된다.

오늘 세계는 사회주의리념이 어느 정도의 생활력을 가지고있는가하는 문제에 또다시 초점을 집중하고있다. 세계사회계가 21세기에도 승승장구하는 우리의 사회주의에 눈길을 돌리고있으며 다른 나라 사회주의와 구별되는 우리 식 사회주의에서 사회주의리념의 과학성과 진리성을 찾고있다.

장구한 기간 반제대결전의 전초선에서 필승을 떨치고 가장 간고한 시련속에서 세기적인 창조와 변혁을 일으켜온 우리 인민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생명력에 대한 크나큰 긍지에 넘쳐있다.

인민의 리상과 념원을 실현해주는 사회주의, 여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의 무한대한 생명력과 견인력, 영향력이 있다. 오늘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인민의 자주적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방해책동을 짓부시며 강성대국을 향하여 질풍같이 나아가고있다. 이 격동적인 현실을 목격하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천리혜안의 선견지명으로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환히 밝히시고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신 어버이수령님께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떠세워주신 우리 식 사회주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는 사람위주의 사회주의,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이다. 물질위주가 아니라 사람, 인민대중에 대한 주체적관점과 립장에 기초하는 사회주의라는데 우리 식 사회주의의 공고성과 불패성이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을 훌륭한 인민으로 키워주시고 세상에서 으뜸가는 사회주의제도를 마련하여주시였으며 우리 인민에게 더 큰 행복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습니다.》

인민대중의 리상과 념원을 실현해주는 참다운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가장 과학적인 길을 밝혀주신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에 벌써 이민위천의 리념이 구현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사회주의리론을 독창적으로 전개하여오시였다. 기성의 리론이나 다른 나라의 경험이 아니라 주체적립장에서 출발하시여 사람,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히신분이 위대한 수령님이시다.

자주, 자립, 자위의 로선,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을 비롯한 주체의 사회주의리론들에는 어버이수령님의 뛰여난 예지와 비상한 탐구력, 위대한 혁명실천이 빛나게 아로새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천리혜안의 선견지명과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에 의하여 사회주의위업이 참다운 민족자주위업으로 발전하고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지게 되였다.

사회력사적운동은 그 주체인 인민대중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발생발전하는 주체의 운동이다. 물질위주가 아니라 사람,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된 사회주의사상이 가장 과학적인 사상이며 그에 기초하여 일떠선 사회주의가 리상적인 사회주의이다.

그러나 어느 사회주의정치지도자도 사람위주,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리론을 전개하지 못하였으며 그러한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우지 못하였다.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나서는 이 력사적과제는 불세출의 위인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정력적인 혁명실천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되게 되였다.

주체의 사회주의사상에 기초하고있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대중의 단결된 힘에 의하여 끊임없이 발전하는 사회주의로 건설되게 되였다. 인민대중은 영원하다. 언제나 인민의 마음속에 있고 인민의 세기적리상을 현실로 꽃피워주는 길을 밝혀주기에 주체의 사회주의사상은 영원불멸한것이다.

인민의 리상과 념원을 실현해주는 참다운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은 당대에 사회주의위업완성의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신데 있다.

후손만대의 존엄과 행복을 위한 근본초석을 마련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회주의건설의 전과정에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신 드팀없는 원칙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건당, 건국, 건군위업을 수행하시던 첫 시기에 벌써 사회주의의 먼 앞날을 내다보시며 우리 당을 어머니당으로 건설하시고 우리 군대와 국가도 인민의 군대와 국가로 창건해주시였다. 한푼의 자금이 귀중하던 새 조국건설시기에 **김일성**종합대학을 창립해주시고 전후 대국주의자들의 압력을 짓부시며 자립적인 중공업을 일떠세우신분이 위대한 수령님이시다.

사회주의위업완성의 만년터전을 닦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는 단 한번의 로선상착오나 편향도 없이 혁명과 건설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백전백승의 령도이며 불면불휴의 무한대한 정력으로 세기를 주름잡는 거창한 창조와 변혁을 일으켜오신 애민헌신의 령도이다. 언제나 인민을 믿고 인민에 의거하여 대고조의 력사를 수놓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조국이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온 세상에 빛을 뿌리게 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이 받아안고있는 모든 인민적시책들과 사회주의생활도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것이며 우리 조국땅우에 솟아난 모든 귀중한 창조물들도 어버이수령님께서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며 마련해주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유산으로 물려주신 일심단결과 무적의 군력, 튼튼한 자립경제를 만년토대로 하고있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의 사회주의로 위용떨치는것이다.

돌이켜보면 국가건설과 그 부강번영의 근본초석을 마련하는 위업을 당대에 실현한 걸출한 위인은 동서고금에 없었다. 숭고한 애민헌신과 정력적인 령도로 당대에 인민의 리상과 념원을 실현해주는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우시고 그 만년토대를 모두 마련하여주신 여기에 세기를 이어 빛나는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이 있다.

인민의 리상과 념원을 실현해주는 참다운 사회주의를 건설하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은 사회주의정치를 사랑과 믿음의 정치로 전환시키신데 있다.

아무리 훌륭한 국가사회제도를 세웠다고 하여도 옳바른 정치방식이 따라서지 못하면 인민의 자주적리상을 실현할수 없다. 참다운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우고 진정한 사회주의정치를 실시하여야 완전무결한 사회주의라고 말할수 있다.

지난 시기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였지만 사랑과 믿음의 정치가 실시된것은 아니였다. 참다운 사회주의정치의 귀감을 창조하시고 사회주의정치를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로 완성하신분이 절세의 위인이신 우리 수령님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에 대한 사랑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시고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의 정치는 인민을 하늘로, 선생으로 내세우시고 인민을 위하여서는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가장 숭고한 인덕정치이다.

한평생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며 그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신분이 우리 수령님이시다. 인민의 지향과 의사를 반영하여 로선과 정책을 세우시고 사랑과 믿음의 정치를 실시하는 정치체제, 정치방법을 완성하시며 인민들에게 값높고 보람찬 생활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세월이 흐를수록 빛을 뿌리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정치에 의하여 우리 사회는 혁명적동지애와 의리가 차넘치는 화목한 대가정으로 전변되였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령도자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하여 동지적으로 굳게 결속되고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며 삶의 보람과 행복을 누리는데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생활력이 있다.

인류가 오래동안 바라던 숭고한 정신과 도덕이 차넘치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야말로 인민의 리상과 념원을 실현해주는 진정한 사회주의이다. 우리에게는 지금 어려운것도 있고 부족한것도 있다. 그러나 주체의 사회주의사상이 있고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가 있기에 우리는 인민의 리상이 반드시 실현된다는것을 굳게 믿고있다.

오늘 진보적인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기념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인류사적대경사로 맞이하기 위한 수많은 기념행사들을 준비하고있다. 이 력사의 화폭들은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업적은 사회주의위업, 세계자주화위업과 더불어 영원히 빛난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인민의 리상과 념원을 실현해주는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업적은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빛을 뿌릴것이다.

2

21세기의 첫 10년대가 지나갔다. 지식경제시대에 들어와 세계의 면모는 급격히 변화되고있다.

인간의 도덕과 정신을 홀시하고 물질적번영을 추구하던 자본주의가 21세기에 들어와 심각한 위기를 겪고있다. 오죽하면 부르죠아출판물들까지도 돈을 중시하고 인간을 무시하던 자본주의가 림종에 직면하였다고 개탄하겠는가. 진리의 기준은 실천이며 진리의 가치는 인간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하는데 있다. 자본주의사회가 생활력이 없는 사회, 전도가 없는 사회라는것은 가리울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다.

지금 사회주의와 새 사회건설의 길로 나아가는 나라들은 물론 자본주의나라들에서도 조선의 사회주의는 가장 리상적인 사회주의라는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이것은 선군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가 새 세기에도 무한대한 생명력과 생활력을 과시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21세기의 첫 10년대는 선군의 기치높이 나아가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이 힘있게 과시된 로정이였다. 선군혁명총진군의 불길속에서 우리의 정치군사적위력이 천백배로 강화되고 혁명적대고조의 열풍속에서 인민의 리상이 하나하나 실현되고있다. 주체사상을 구현한 선군정치는 새 세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패의 생명력이 더욱 높이 발휘되게 하는 근본원천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은 선군시대이며 선군정치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생명선이다.》

우리 식 사회주의는 온갖 지배주의를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인민의 안녕을 믿음직하게 지키는 불패의 성새이다.

위기에 처할수록 더욱더 패권주의에로 나아가는것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본성이다. 제국주의와의 대결은 정신력의 대결, 총대의 대결이다.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횡을 짓부시자면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킬수 있는 정치철학과 정치체제가 있어야 한다. 제국주의세력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자주적대를 세우며 강력한 정치군사적힘을 마련해나가는 국가사회제도가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국가사회제도이다. 국권이 있어야 번영도 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에는 나라와 민족의 강성번영과 인민대중의 리상을 실현해주는 불패의 정치군사적힘을 마련하는 담보가 있다. 단결이 강하고 총대가 위력하면 어떤 지배주의세력도 타승할수 있다. 국방위주의 국가정치체계가 확립되고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되여있으며 무적의 군력을 가지고있는것이 우리 식 사회주의이다. 선군의 기치밑에 다져진 힘이 있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이 핵몽둥이를 휘두르면 핵억제력으로 쳐갈기고 경제봉쇄를 강화하면 경제적자립으로 분쇄하고 심리모략전으로 나오면 정치사상적위력으로 짓뭉개는것이다.

지금 전면적통치위기에 처한 남조선역적패당은 미제와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대규모적인 군사연습소동을 련이어 벌리고있다. 미제가 우리 나라를 호시탐탐 노리면서도 감히 어쩌지 못하는것은 우리에게 선군의 기치밑에 마련된 무진막강한 힘이 있기때문이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침략과 분렬의 아성을 송두리채 날려보내고 민족의 력사적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할것이다.

우리 식 사회주의는 지식경제시대에 맞게 인민대중의 지적잠재력과 창조적적극성을 최대로 발양시켜나가는 창조의 화원이다.

세계는 인간의 창조적능력, 과학기술지식에 의하여 사회적재부를 급격히 늘여나가는 지식경제시대에 들어섰다. 지식경제시대에는 유능한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고 사람들의 창조적역할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는 사회가 제일 높은 발전능력을 가진 사회이다.

우리 식 사회주의는 모든것이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며 사람의 창조적역할을 높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람위주의 사회주의이다.

우리 나라는 오래전부터 배움의 나라로 온 세상에 자랑떨치고있으며 우리 식 사회주의는 지난 수십년동안 인민대중의 창조적적극성을 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왔다. 인민대중의 창조적능력을 발전시키고 그 역할을 높여나가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은 선군의 기치밑에 더욱 높이 발휘되고있다.

창조적능력을 키우고 창조적역할을 높이는데서도 정신력이 기본이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에 의하여 온 사회에 군인정신, 군인기질, 군인본때로 배우고 창조하는 혁명적기풍이 확립되였다. 인민군대의 선구자적역할에 의하여 고도로 문명화되고 현대화된 새 세기의 표본공장들이 도처에 일떠서고있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온 나라에 과학기술중시기풍이 차넘치고 높은 수준의 인재양성체계가 수립된것도, 강성대국건설의 최전선인 희천발전소건설장에서 인민군군인들이 선군조선의 대진군속도를 창조하고있는것도 우리 당의 선군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오늘 우리 인민은 최첨단돌파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현대과학기술의 높은 령마루에로 오르고있다. 핵기술과 우주기술, CNC기술을 비롯하여 최첨단과학기술개발에서 이룩된 성과들과 주체철생산체계와 주체비료생산체계확립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에서 일어난 기적들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자랑찬 승리이다.

적들의 악랄한 과학기술봉쇄속에서 이룩된 이 성과들은 선군의 기치가 사람의 창조력을 최대로 발양시키는 창조의 보검이라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가 전체 인민이 하나의 사상과 지향을 가지고 비상한 창조정신, 창조본때를 발휘하도록 힘있게 추동하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는 지식경제시대에도 기적창조의 력사를 수놓아갈것이다.

우리 식 사회주의는 령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에 기초한 동지적사랑과 혁명적의리가 꽃펴나는 영원한 삶의 품이다.

사회적집단속에서 살며 발전하는 사람은 집단주의를 본성으로 하고있다. 사람은 사회적집단을 떠나 자주성, 창조성을 실현할수 없으며 사회성원들의 협력을 떠나서 사회적집단이 유지공고화될수 없다. 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되는 사회가 사람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사회이다.

개인주의에 기초하여 물질적욕망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세계는 지금 최악의 위기를 겪고있다. 정치적혼란과 무질서가 지배하고 변태와 패륜패덕이 범람하고있으며 살인, 강도, 폭행과 같은 사회악이 판을 치고있다. 많은 사람들이 건전한 사회관계를 확립하고 인간의 정신과 도덕을 되살릴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러나 사람들사이에 반목과 대립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인간적인 사회관계, 인간적인 정신도덕이란 상상할수 없다. 개인주의, 시장경제원리에 기초한 자본주의사회가 불피코 무너지게 된다는것은 필연적이다.

우리 식 사회주의는 령도자와 인민의 일심단결에 기초하여 모든 사회성원들이 혁명적동지애와 의리로 굳게 결속된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이다. 우리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은 우리 당의 선군령도와 애병, 애민의 정치에 의하여 오늘 새로운 높이에서 공고발전되고있다. 군대와 인민이 사상도 하나, 투쟁기풍도 하나로 되고있으며 온 사회에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생활기풍이 꽉 차넘치고있다.

천만군민이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심장을 불태우고 동지를 위해서라면 뼈와 살도 아낌없이 바치며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하는것이 우리 사회에 차넘치는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이다. 아직은 생활상어려움이 있어도 뜻과 정이 통하고 서로 아끼고 위해주는 우리 식 사회주의가 얼마나 훌륭한가.

모든 사람들이 조국의 뿌리가 되려는 애국의 한마음으로 살고 가장 공고한 정치적안정이 보장되고있으며 고상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생활이 활짝 꽃펴나는것이 선군의 기치밑에 더욱 굳건해지는 우리 식 사회주의이다.

선군의 기치는 우리 식 사회주의가 21세기에도 가장 우월하고 생활력있는 사회주의로 빛을 뿌리게 하는 백승의 기치이다. 우리 당이 높이 추켜든 선군의 붉은기가 있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는 인민의 리상과 념원을 실현해주는 사회주의로 영원불멸할것이다.

⁘ ⁘

지금 진보적인류는 우리 식 사회주의를 21세기에도 손색없는 가장 리상적인 사회주의로 높이 칭송하고있다.

세계의 적지 않은 사상가, 정치가, 진보적인사들은 조선식사회주의는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과만 결부하여 부를수 있는 **김일성**사회주의라고 칭송하면서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업적은 조선의 재보일뿐아니라 인류공동의 제일 큰 재보라고 격정을 터치고있다.

오늘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업적은 경애하는 장군님에 의하여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강성대국으로 더욱 빛내이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탁월한 대고조사상과 불면불휴의 초강도강행군, 숭고한 애민헌신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강성대국건설념원이 우리 조국땅우에 빛나는 현실로 펼쳐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가 있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는 인민의 리상과 념원을 실현해주는 사회주의로 영원히 빛날것이다.

정 선 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대표단을 만났다

【평양 5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20일 만수대의사당에서 부주석 진종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장 김완수, 관계부문 일군들과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림시대리대사 리경강,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석상에서 단장은 두 나라 령도자들의 깊은 관심속에 전통적인 중조친선관계는 더욱 강화발전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건축예술론》 발표 20돐 기념보고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건축예술론》** 발표 20돐 기념보고회가 20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내각총리 최영림동지와 건설건재공업상 동정호, 도시경영상 황학원, 국토환경보호상 김창룡, 성, 중앙기관 일군들, 평양시내 건축설계가들, 건설부문 일군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조선건축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인 국가건설감독상 배달준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주체80(1991)년 5월 21일 불후의 고전적로작 **《건축예술론》**을 발표하시여 사회주의건축창조를 위한 투쟁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을 마련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로작에는 사회주의건축창조에서 제기되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이 주체적립장에서 전면적으로 종합체계화되여있다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사회주의사회에서 건축을 혁명적수령관으로 일관시키고 우리 식으로 창조해야 한다는 심오한 사상을 밝히신데 기초하여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구현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건축창조에서 견지해야 할 근본원칙들을 제시하시였다.

또한 건축을 종합예술로 정식화하시고 건축의 조형예술성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 등을 구체적으로 천명하시였다.

력사상 처음으로 건축과 사회, 건축과 인간과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해명한데 기초하여 사회주의건축의 본질과 성격, 사명, 사회발전에서 건축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사회주의건축창조의 근본문제들을 새롭게 밝힌 위대한 장군님의 고전적로작은 주체건축의 불멸의 대강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사회주의건축창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심으로써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건축창조사업을 발전시키고 주체건축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한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보고자는 사회주의건축의 새 리정표를 밝혀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어버이수령님의 부강조국건설념원을 꽃피우기 위한 투쟁에로 건축가들과 건설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고결한 충정과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지니시고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과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등을 더 잘 꾸리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공업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나라의 면모를 일신시키며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대상건설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가도록 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온 나라의 수많은 건설장들을 찾아 현지지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길에서 선군시대의 무릉도원들이 펼쳐지고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지난 20년간 건설분야에서 획기적전진이 이룩된것은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실이며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힘있는 과시로 된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건설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기본건설정책을 높이 받들고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건설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자기앞에 맡겨진 어렵고 방대한 과업을 훌륭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보고자는 모든 건축가들과 건설자들이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혁명적기풍을 발휘하여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건축사상과 리론을 빛나게 구현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평양시를 혁명적수령관이 구현된 도시, 웅장화려한 세계적인 도시,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필요한 모든것이 훌륭히 갖추어진 도시로 전변시켜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건축물들을 지방의 특성에 맞으면서도 최첨단수준으로 일떠세우며 3월5일청년광산의 모범을 따라 도시와 농촌마을들을 더 잘 꾸릴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흥남가스화대상공사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앞당겨 끝내며 창성군을 본보기로 지방공업공장들을 현대적으로 개건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공업부문의 토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대상건설을 다그치며 철도와 도로의 현대화를 실현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 **《건축예술론》**을 지도적지침으로 틀어쥐고 모든 건축가들과 건설자들은 전후 평양속도로 영웅조선의 기상을 보여준 그 기세, 그 기백으로 끊임없이 새것을 창조하고 혁신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설계작성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건설에서 공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고 건재를 국산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건축가동맹에서는 동맹원들을 당의 주체적건축사상과 리론으로 무장시키며 열렬한 혁명가, 재능있고 다방면적인 과학기술인재로 준비시켜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는 건축건설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오늘의 대건설전투에서 지혜와 재능, 열정을 다 바쳐나감으로써 강성대국건설을 앞당기는데 참답게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로작학습을 실속있게

2.8비날론련합기업소 가성소다직장 당조직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작학습을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당조직에서는 당세포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학습계획을 주별, 월별로 구체적으로 세우고 독보와 해설모임, 연구발표모임, 문답식학습경연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로작학습을 참신하게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실속있게 진행되는 로작학습을 통하여 절세위인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한 가성소다직장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갈 한마음안고 당면한 제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로농통신원 장 명 일

창조와 건설의 영재를 모시여 빛나는 전성기를 펼쳐온 주체건축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건축예술론》발표 20돐을 맞으며

위대한 전변의 갈피에 새겨진 불멸의 령도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높이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벅찬 시기에 우리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건축예술론》을 발표하신 2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령도하시는 과정에 주체의 건축리론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시고 건축과 사회, 건축과 인간의 호상관계를 가장 과학적으로, 전면적으로 해명하시였으며 로동계급의 당이 건축창조에서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건축창작리론과 형성리론 및 지도방법을 확립하시였다.

이런 고귀한 경험과 성과들에 기초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은 사회주의건축창조의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학설이며 위대한 건축강령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무엇을 하나 건설하여도 21세기의 본보기가 되고 강성대국의 체모에 어울리게 건설하여야 하며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만년대계로 건설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과정에 우리 인민은 로작에 담겨진 사상과 리론, 건축창조원칙과 방법들을 적극 구현함으로써 독창적이며 혁명적인 우리 식의 건축을 창조하여왔으며 그 과정에 로작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남김없이 과시되였다.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시대의 모든 창조물들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만년대계로 건설할데 대하여 늘 강조하고계신다.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여기에는 단순히 건축물의 질을 최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는 요구만이 아니라 건축창조에 우리 당의 건설구상과 주체적건축리론을 정확히 반영할데 대한 심오한 내용이 담겨져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건축을 혁명적수령관으로 일관시켜야 한다는 건축창조의 혁명적이며 독창적인 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원칙을 구현하시여 주체건축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정중히 모신 만수대언덕을 축으로 조국과 인민을 위해 쌓으신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전해갈수 있게 훌륭하게 건설된 혁명의 수도 평양, 주체사상탑이며 개선문, 당창건기념탑을 비롯한 기념비적창조물들과 인민의 기쁨 넘쳐흐르는 옥류관과 청류관, 창광원, 인민대학습당과 인민문화궁전 그리고 곳곳마다에 일떠선 사랑의 거리들과 현대적인 건축미를 자랑하는 극장들이며 다양한 문화정서생활기지들…

정녕 혁명의 수도 평양이 어버이수령님의 절세의 위인상과 불멸의 업적, 조선의 국력을

인민들이 좋아하는가

완공된 그 어느 건축물을 돌아보시든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들이 좋아하는가를 먼저 헤아리신다.

대동강기슭에 새로 일떠선 옥류관 료리전문식당을 돌아보시면서 일을 더 잘하여 인민의 감사를 받으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말씀에는 우리 건축의 기본사명과 건설의 기본원칙을 다시금 강조하시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건설과 과시하며 웅장화려하게 일떠선것은 우리 장군님께서 바치신 불철주야의 창조적사색과 정력적인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의 먼 앞날까지 내다보시면서 모든 건축물들을 새롭고 특색있게, 창조적으로 건설하도록 하시였다.

새롭고 독창적인것, 비반복적인것을 우리 장군님께서는 제일로 좋아하신다.

우리 인민은 만수대거리를 비롯하여 선군시대에 태여난 만점짜리 거리, 멋쟁이극장들에서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와 선견지명을 보고있으며 건축예술의 대가이신 그이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있다.

정형을 료해하실 때에도, 새로 일떠선 함경북도인민병원을 돌아보실 때에도 우리 장군님께서는 평가의 기준을 인민의 요구와 리익에 두시였다.

그것으로 하여 만족해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심각하게 지적도 하시며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자애로운 어버이장군님의 령도의 손길아래 선군시대의 모든 건축물들에는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이 철저히 구현되게 되였다.

진정 우리 장군님께 있어서 건축물의 미학적가치와 실용적가치를 재는 자막대기는 오직 인민이 얼마나 좋아하는가, 바로 이것이다.

형식주의를 경계하시고 반복을 싫어하시며 인민들이 좋아하고 인민들이 마음껏 향유하는 진실로 사회주의적인 건축물들을 창조하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의 손길을 떠나 수도는 물론 전국각지에 일떠선 선경마을, 선경거리, 명승지들과 휴양지들에 대해 생각이나 할수 있겠는가.

얼마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열수리용의 새 기술을 개척한 룡성기계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였을 때에도 인민들이 리용할 뜨뜻한 살림집과 일터를 생각하시며 그토록 기뻐하시였으니 정녕 우리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오직 인민의 행복, 그 하나의 열망이 가득차있다.

강성대국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치시고 애국헌신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행복의 락원을 가꾸어주시는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 창조와 건설의 영재를 모시여 김일성조선은 영원무궁토록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솟아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김 진 수

거창한 변혁의 나날에

깨여진 낡은 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인가 해당 일군들에게 살림집내부설계과정에 도식적인 낡은 틀을 없애야 한다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그때 당시까지 건설된 살림집들의 내부구조를 보면 전후복구건설시기와 천리마대고조시기에 일떠세운 살림집들과 별로 차이가 없었다. 달라진것이 있다면 1칸이나 2칸짜리 살림집을 2~3칸, 혹은 여러칸으로 설계하여 칸수를 늘인것뿐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가 건설하는 하나하나의 살림집들은 모두 로동당시대의 기념비로서 먼 후날에 가서도 자그마한 손색이 없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새로 건설하는 살림집들은 공동살림방을 중심으로 침실과 부엌, 위생실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후 건설부문에서는 종전의 낡은 틀을 없애고 인민들의 생활에 보다 편리한 살림집들이 일떠서게 되였다.

하나의 배풍설비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준공한지 얼마 되지 않은 4.25려관을 찾아주시였을 때였다.

그때 려관의 어느 한 홀에 들어서시여 배풍설비의 설치상태를 료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홀면적에 비하여 설비의 능력이 작다고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홀의 공기는 언제나 맑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그러자면 배풍을 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작게 낸 배풍구를 크게 내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그 말씀을 받아안으며 동행한 일군들은 자책감을 금할수 없었다. 아직은 누구도 배풍설비의 능력에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하였던것이다.

하나의 창조물앞에서도 먼저 그것을 리용할 군인들과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부터 생각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대해같은 사랑의 세계를 가슴깊이 새겨안으며 일군들은 머리를 숙이였다.

달라진 설계안

청년영웅도로가 종전의 고속도로들과 달리 넓은 폭으로 시원하게 건설된데는 깊은 사연이 있다.

원래 도로설계를 맡은 일군들은 종전의 경험과 세계적인 고속도로건설추세를 반영하여 비교적 넓다고 하는 도로와 같은 폭으로 설계하였다.

이 사실을 료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기존관례에 구애되지 말고 도로폭을 크게 정하여 넓고 시원하게 뽑을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사실 설계가들이 예견했던 도로폭은 지금보다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설계가들은 하나의 도로를 건설해도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하시려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가슴깊이 새기며 설계안을 다시 세웠다. 하여 먼 후날에도 손색없이 청년영웅도로가 넓고 시원하게 뻗어나가게 되였다.

본사기자 정 경 철

건축물의 질과 건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건축예술론》에서 설계의 질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건재의 질이 낮으면 훌륭한 건축물을 창조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건재는 건설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좋은 건재를 써야 건설물의 품위를 높일수 있고 그 질을 보장할수 있습니다.》

모든 건축물은 설계가 나오면 건재를 리용하여 공사를 시작하고 건재로 마감짓는 건재품의 집합체라고 할수 있다. 때문에 같은 건축물이라고 하여도 어떤 건재를 리용하는가에 따라 그 질적수준은 크게 달라진다.

그러므로 질좋은 건재생산을 늘여 중요건설장들에 더 많이 보내주는것은 모든 건축물을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일떠세우기 위한 선결조건의 하나로 된다.

◇질좋은 건재생산을 늘이는것은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기념비적건축물들이 그 어느때보다 거창하게 일떠서는 오늘의 대고조시대에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 커다란 기쁨을 드린 만수대거리와 국립연극극장을 비롯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은 하나같이 설계와 시공이 잘되고 질좋은 건재를 리용한것으로 하여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없는 나라의 귀중한 재부들이다.

조국땅우에 현대적인 건축물들이 소리치며 일떠서는 오늘의 현실은 기본건설에서 건재생산보장이 가지는 의의를 중시하고 여기에 큰 힘을 넣고있는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건재공업부문에서 질좋은 건재생산을 끊임없이 늘여 기념비적건축물창조사업에 크게 이바지하여야 한다.

건재공업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자기 단위의 약동하는 숨결이 곧 현대적인 건축물건설의 빠른 속도창조와 함께 높은 질보장으로 이어진다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줄기찬 생산돌격전, 최첨단돌파전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야 한다.

이미 마련된 생산토대를 공고히 하면서 자체의 실정에 맞게 지방자재를 적극 동원리용하고 현대화를 힘있게 추진하여 현대적인 건축물건설에 효과있게 쓰일 질좋은 세멘트와 벽돌뿐아니라 유리건재와 합성수지건재, 보온성이 높은 건재와 천연건재, 위생자기를 비롯한 일반건재와 마감건재생산을 계속 늘여야 한다.

그리하여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수풀처럼 일떠세워 세기를 이어온 주체건축창조의 훌륭한 전통을 끊임없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자랑스러운 기념비적창조물들

당창건기념탑

당창건 50돐을 맞으며 건립된 당창건기념탑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당건설업적과 승리와 영광으로 아로새겨진 우리 당의 자랑찬 력사를 상징하는 시대적기념비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모신 만수대언덕에서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곳에 일떠선 당창건기념탑은 폭넓고 심오한 사상주제적내용에 맞게 새롭고 독창적인 탑형식을 개척한 우리 식의 기념탑이다.

기념탑은 종전과는 달리 마치와 낫, 붓을 형상한 서로 독립적인 세개의 구조물을 수직으로 세우고 그것을 원형띠로 둘러주어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도록 구성함으로써 탑의 주제사상적내용을 명확히 밝히고 형상의 전일적인 통일과 립체성을 보장하고있다.

리상적인 주택거리

만수대거리는 당의 웅대한 수도건설구상에 따라 1년 남짓한 짧은 기간에 종래의 낡은 건물들을 통채로 들어내고 새롭고 현대적인 거리로 일떠섰다.

만수대거리는 강성대국에서 우리 인민모두가 살게 될 살림집건설의 본보기이다. 거리에는 수십동의 현대적인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 각종 편의봉사시설들, 원림 및 공원구역들까지 훌륭히 꾸려져 주민들의 생활에 최대의 편의를 보장해주고있다.

훌륭한 문화전당

수도의 한복판에 자리잡은 국립연극극장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과 예술인들에게 안겨주신 은정깊은 사랑의 선물이며 선군시대에 일떠선 또 하나의 기념비적창조물이다.

민족적형식과 현대미가 결합되여 우아함과 웅장함, 정교함이 잘 조화된 문화전당으로 꾸려진 극장에는 관람석과 무대, 최신음향 및 조명설비들, 련습실과 분장실들은 물론 보조청사와 편의봉사시설에 이르기까지 예술창조와 공연, 관람 등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있다.

본사기자

방문기

유망한 인재들이 자라난다

평양건설건재종합대학을 찾아서

우리는 얼마전 종합대학으로 발전한 평양건설건재종합대학을 찾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현대적과학기술지식과 높은 창조적능력은 주체형의 혁명인재가 소유해야 할 필수적인 자질입니다.》

봄빛이 따스한 교정에서 만난 대학의 교육일군인 장영일동무는 우리를 대학연혁소개실로 이끌었다.

사진과 모형사판들, 설계형성안들로 꽉 들어찬 소개실을 숭엄한 감정을 안고 돌아보면서 우리는 주체적건축사상을 내놓으시고 빈터우에 사회주의락원을 일떠세우신 어버이수령님의 헌신적인 로고에 대하여, 탁월한 사상리론과 정력적인 령도로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건축창조의 본보기로 되게 하여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다시한번 깊이 느끼게 되였다. 대학이 걸어온 근 60년력사의 갈피마다에는 대학생들을 주체형의 혁명인재로 키워주신 절세위인들의 령도의 손길이 뜨겁게 새겨져있었다.

최근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학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평양건설건재대학(당시)은 공로가 있는 대학이라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으며 새 교사도 짓도록 해주시였다고 동행한 일군은 긍지에 넘쳐 말하는것이였다.

우리는 건축학부 건축설계강좌에 들어섰다.

여러명의 교원들이 새 거리의 설계형성안을 놓고 정열적으로 토론을 벌리고있는 참이였다.

강좌장 량봉진동무의 말에 의하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좌의 교원, 학생들이 창작한 설계형성안들을 여러차례나 보아주시고 그대로 건설하도록 하여주시였으며 평양민속공원 총계획설계와 관련한 다매체편집물을 보시고서는 설계를 잘하였다고 과분한 평가의 말씀도 주시였다고 한다.

강좌에는 자랑이 많았다.

5.21건축축전에서 해마다 대학이 우수한 단체로 평가받는데는 강좌교원들의 노력이 크게 깃들어있다는 자랑이며 대학을 졸업한 건축가들이 평양도시설계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 1번수로 활약하고있다는 자랑…

우리는 건축설계실에 들어섰다.

20대의 젊은 대학생들이 콤퓨터앞에 마주앉아 새로운 형성안설계에 여념이 없는데 교원 김철남동무가 조용히 다가오더니 현재 3차원설계작성중이라고 알려주는것이였다.

모두가 진지한 표정으로 자신있게 콤퓨터를 다루고있었다.

경탄을 자아내는 희한한 초고층살림집형성안도, 지붕의 형태가 특색있는 멋쟁이극장과 호텔도, 지열을 리용하는 에네르기절약형의 건물도 화면우에서 무르익고있었다.

참으로 가슴흐뭇한 광경이였다.

인재가 많아야 나라가 흥하는 법이다.

지금까지 공장, 기업소들을 돌아보면서 폭포처럼 쏟아지는 제품들도 많이 보아왔지만 유능한 건축인재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니 인재의 대부대를 가진 내 조국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슴은 더욱 부풀어올랐다.

우리는 건축수재학습실에도 들리였다.

몇해전 이 대학을 비롯한 건설부문 교육기관들에서 수재교육을 강화하여 세계적인 설계가, 건축가들을 많이 키워내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받들고 대학에서는 이 학습실을 꾸리였다고 한다.

창조의 거장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이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세계일류급의 건축가가 될 희망을 마음껏 꽃피우고있는 조선의 건축가후비들이야말로 얼마나 행복한 세대인가.

강성대국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전도유망한 건축가들이 자라는 대학의 정문을 나서는 우리의 눈앞에 더욱 개화만발하는 주체건축의 새시대가 가슴벅차게 안겨왔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주창선

더욱 휘황찬란할 래일

선군으로 존엄높은 이 땅우에 강성대국을 소리쳐부르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련이어 일어나는 오늘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주체건축분야에서도 세기에 빛날 휘황한 전망이 끊임없이 펼쳐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기본건설사상과 령도업적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더욱더 빛내여나가는것이 당의 일관한 기본건설정책이며 령도입니다.》

세기를 이어가며 주체건축의 번영기를 련이어 펼치려는것은 우리 당의 드팀없는 결심이며 확고한 의지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온 나라 도처에서는 지금 주체성과 민족성, 현대적미감을 갖춘 우리 식 건축창조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선군시대의 새로운 평양번영기가 펼쳐지는 요즘 수도의 10만세대 살림집건설의 중요대상으로 수도중심부에 일떠서게 되는 희한한 살림집설계도는 보는 사람 누구나 래일에 대한 희망과 남다른 긍지로 가슴부풀게 한다.

혁명적수령관으로 일관된 수도건설의 빛나는 전통을 살리면서 묶음식과 원형식, 곡선미가 다양하게 배합된 초고층살림집들이 창공높이 치솟게 하고 현대적인 극장과 특색있는 봉사망들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건설하도록 설계된 이 거리의 형성안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나 행복한 새 보금자리의 주인이 되고싶은 강한 충동을 금할수 없게 한다.

주체적인 건축창조의 벅찬 숨결은 비단 우리 인민이 강성대국에서 살게 될 희한한 살림집건설장에서만 높뛰는것이 아니다. 가는 곳마다에 현대적인 면모를 갖추고 손색없이 일떠서는 수많은 산업건물들과 극장들 그리고 록화조성이 잘된 공원들과 산뜻하게 꾸려지는 봉사시설들…

수도건설에서만 새로운 전성기가 펼쳐지는것이 아니다.

우리 인민이 어제날 꿈속에서만 그려보던 무릉도원과도 같은 사회주의선경거리와 선경마을들이 온 나라 이르는 곳마다에 수풀처럼 일떠서고있다.

당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기념비적건축물들의 품위와 질을 담보할수 있는 현대적인 건재생산기지들도 훌륭히 꾸려져 그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고있다.

주체건축창조분야에 대한 우리 당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기에 이 땅우에는 거창한 전변의 력사가 끊임없이 흐를것이며 우리 인민은 당의 은정을 노래하며 세세년년 세상에 부럼없이 행복만을 누려갈것이다.

본사기자 지 원 철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날로 번영하는 평양시의 일부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새로운 기적과 위훈에로 추동하는 힘찬 경제선동의 북소리

* 수도의 살림집건설장들에서 진행된 전국 시, 군(구역)기동예술선동대 활동 *

투쟁의 노래속에 흘러간 20일간의 낮과 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서 경제선전선동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전국 시, 군(구역) 기동예술선동대 집중경제선동이 수도중심부와 북성지구, 락랑—력포지구와 하당지구 건설장들 그리고 김책제철련합기업소와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등에서 진행되였다.

우리는 여기에 수도중심부의 전투장에 파견된 기동예술선동대원들속에서 발휘된 20일간에 걸치는 위훈의 낮과 밤에 대한 이야기의 일부를 전한다.

《직사포를 고지에로!》

전투가 시작된 어느날 만사람이 지켜보는 속에 굴착기가 공중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육중한 굴착기를 기중기로 통채로 5층건물 꼭대기까지 들어올리는 아슬아슬한 순간이였다.

종전의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을 헐어버리는 전투는 수도의 중심부에서 진행되는것으로 하여 발파의 방법으로 할수 없었다. 작업조건이 불리하다고 하여 결코 속도를 늦출수 없었다. 그리하여 용감무쌍하고 지혜로운 우리 건설자들은 건물우에 굴착기들을 올려놓고 그것으로 벽체를 허물고 버럭들을 처리할 대담한 착상을 내놓았던것이다. 허나 그것은 결코 쉬운것이 아니였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려했다.

한층 또 한층 굴착기가 오를수록 사람들의 긴장감은 더해갔다. 숨소리마저 차츰 사라졌다. 기중기운전공의 이마에서는 땀이 돋고있었다. 바로 이때 태탄군기동예술선동대의 방송원 김혜영동무의 격동적인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전투원동지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직사포를 고지에로 끌어올려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단호히 꺾어버린 전화의 세대들이 우리를 지켜보고있다. 그 영웅적전통을 이어받은 우리가, 김일성민족의 후손들이 못해낼 일이란 세상에 없다.

기중기운전공의 눈앞에는 전화의 나날 불타는 고지에 직사포를 끌어올리던 영웅전사들의 불굴의 모습이 선히 떠올랐다.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신념의 구호가 심장을 불태웠다. 운전대를 억세게 틀어쥔 그의 손은 추호도 떨리지 않았다. 드디여 첫 굴착기를 성과적으로 들어올렸다. 5대의 굴착기가 모두 기발마냥 우뚝 건물우에 세워졌을 때 만세의 함성이 터져올랐다.

이렇게 전투가 가장 치렬하게 벌어지는 곳,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마다에서 높이 울려퍼진 태탄군기동예술선동대원들의 격동적인 방송선동과 《공격전이다》와 같은 전투적인 노래들은 대중의 무한대한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는 위력한 수단이였다. 태탄군기동예술선동대가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린 전투현장에서는 열흘분 과제를 닷새동안에 해제끼는 혁신이 창조되였다.

건설장의 예쁜이들

옹진군기동예술선동대원들은 버럭운반의 길을 달리는 자동차에서도 경제선동을 줄기차게 이어갔다. 찌꿀새같은 목소리로 불러주는 그들의 노래소리에 피곤이 몰려드는 밤에도 운전사들의 애국의 열정은 불타올랐다.

때로는 렬을 지어 버럭을 하차할 차례를 기다리는 시간마저 아까와 운전사들은 승벽을 부리였다.

《자, 신바람나게 또 한탕 달려봅시다!》하는 20살 꽃나이 기동예술선동대원 김은미동무의 말에 더욱 사기를 올리며 어둠속에서도 힘차게 차를 몰아가는 83호자동차 운전사,

무엇이 더 필요하랴. 우리 예쁜이들의 노래와 웃음이면 그만이다. 이것이 83호자동차 운전사만이 아닌 모든 운전사들과 건설자들의 마음이였다. 이렇게 수송부문 전투원들의 위훈이 나래치는 곳에는 언제나 최은경, 최옥 등 기동예술선동대의 예쁜이들이 함께 있었다.

그들의 힘찬 경제선동에 떠받들려 버럭 한차를 실어내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종전에는 하루밤에 최고 10차분의 버럭을 처리하던 한대의 자동차가 24차분까지 해제끼는 놀라운 성과도 이룩되였다. …

옹진군기동예술선동대가 활동하는 전투장에서 전투과제를 앞당겨 끝내는 기쁨의 시각이 왔다. 새벽 2시, 그때 운전사들과 건설자들은 자기들에게 안겨지는 아름다운 축하의 꽃다발을 정답고도 미더운 예쁜이들에게 도로 안겨주었다. 웃음밖에 모르는것 같던 예쁜이들은 그 환희의 시각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리수복영웅은 살아있다

갑자기 쨍— 하는 요란한 소리가 귀청을 때렸다.

순간 주변에서 작업하던 1 000여명의 시선이 일제히 한곳으로 쏠렸다. 건물허물기작업에 쓰이던 1t이 훨씬 넘는 쇠덩어리가 기중기의 팔에서 벗겨져 나가 반나마 허물어진 건물에 박히였던것이다. 긴장한 순간이 흘렀다. 누구든 건물에 올라가 련결고리를 다시 끼워넣어야 한다는것은 명백하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건물이 무너져앉을지 모르는 조건에서 그것은 대단히 위험천만한것이였다.

바로 이때 누가 말릴새도 없이 바람처럼 몸을 날리며 서슴없이 달려가는 청년은 과연 누구인가?

청년의 팔에 낀 빨간 기동예술선동대완장이 보였다. 한초 또 한초…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보았다. 이윽고 이마의 땀을 씻으며 청년은 기중기운전공을 향해 손을 저었다.

그 시간은 불과 10분간이였다. 그러나 많은것을 각오해야 하는 10분간이였다. 사람들은 영웅적소행의 주인공을 둘러쌌다. 리수복영웅의 고향도시인 순천시에서 온 기동예술선동대원 최철민동무였다.

어떤 생각으로 그런 영웅적행동을 할수 있었는가 하는 우리의 물음에 대한 그의 대답은 너무도 소박했다.

—순간도 건설을 멈출수 없다는 하나의 생각뿐이였다. 나는 언제나 리수복영웅처럼 살고싶다.

그의 나이는 33살, 집에는 귀여운 어린 딸애와 사랑하는 안해와 아버지, 어머니가 있다. 안변청년발전소건설에 참가한 제대군관이다. 더 물을 필요가 없었다.

그렇다. 우리의 혁명적군인정신의 소유자들과 더불어 리수복영웅은 오늘도 살아있다. 시대를 들끓이는 영웅적위훈의 창조자들, 수천수만의 오늘의 리수복이들속에는 우리의 기동예술선동대원들도 있다.

20일간의 낮과 밤은 길지 않지만 위훈의 이야기는 끝이 없다. 숭고한 충실성과 집단주의정신을 지니고 자기 맡은 단위만이 아닌 온 건설장을 돌면서 열정적인 방송을 한 온천군기동예술선동대의 관록있는 방송원 림금철동무와 언제나 선동의 앞장에 선 옹진군기동예술선동대의 김영복동무, 현장에서 열정적인 방송선동으로 건설자들을 위훈에로 고무하고 때로는 친어머니가 되여 기동예술선동대들을 이끌어온 황주군의 책임일군인 백광남동무, 태탄군의 책임일군 김인수동무, 옹진군의 책임일군 리재성동무 그리고 국장 뢰일남동무와 리룡주, 김영철동무 등 문화성 일군들…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림없이 뛰여드는 이런 미더운 투쟁의 나팔수들이 있기에 2012년을 향해 가는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본사기자 정영화

혁신에로 부른 나팔소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려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대중의 혁명적열의가 높이 발양될수 있으며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끊임없이 창조될수 있습니다.》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건설전투장에서는 통천군기동예술선동대원들과 희천시기동예술선동대원들의 경제선동활동도 활발히 벌어졌다.

강성대국건설의 주요전투장들마다에서 대고조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며 영예를 떨쳐온 각지의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이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건설장으로 달려온것은 지난 4월의 어느날이였다.

그때 대장들인 송명수, 오춘옥동무를 비롯하여 통천군과 희천시의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은 렬차에서 내리는 길로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높이 모신 만수대언덕에 올랐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려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대중의 혁명적열의가 높이 발양될수 있으며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끊임없이 창조될수 있습니다.》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건설전투장에서는 통천군기동예술선동대원들과 희천시기동예술선동대원들의 경제선동활동도 활발히 벌어졌다.

강성대국건설의 주요전투장들마다에서 대고조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며 영예를 떨쳐온 각지의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이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건설장으로 달려온것은 지난 4월의 어느날이였다.

그때 대장들인 송명수, 오춘옥동무를 비롯하여 통천군과 희천시의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은 렬차에서 내리는 길로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높이 모신 만수대언덕에 올랐다.

자강도와 강원도사람들의 마음을 담아 어버이수령님께 삼가 인사를 드린 그들의 가슴속에는 이런 불같은 결의가 새겨졌다.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수도건설구상을 높이 받들어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힘차게 울려나가겠습니다.

이런 뜨거운 충정을 안고 북성지구 살림집건설장으로 달려나간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은 곳곳마다에서 열정적인 선동과 혁명적인 노래들, 기백있는 취주악 등으로 경제선동활동을 맹렬히 벌리였다.

희천시기동예술선동대원 윤영덕동무는 군인건설자들모두가 좋아하는 노래 《장군님 가까이엔 병사가 산다네》를 기백있게 불러 그들의 열의를 북돋아주었는가 하면 통천군기동예술선동대 신경철, 리향순동무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답게 오늘의 대고조전투장에서 승리를 떨치자는 호소성있는 선동으로 온 공사장을 들끓게 하였다.

특히 통천군기동예술선동대 김원철동무는 건설장에 난관이 조성되였을 때 붉은기를 휘날리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담력과 배짱으로 승리자의 함성을 크게 울려나가자고 군인건설자들을 적극 고무하였다.

희천시와 통천군의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의 경제선동은 격식과 틀이 없었다.

마이크를 쥐고 노래를 부르다가도 군인건설자들과 맞들이를 쥐고 달리기도 하였고 쉴참이면 친혈육의 정을 기울이고 병사들의 고향소식도 전해주며 선군시대의 숨결이 맥박치는 철령의 철쭉꽃과 장자강의 희한한 불야경에 대한 이야기로 그들의 가슴가슴을 울려주기도 하였다.

이렇듯 군인건설자들의 정신력을 북돋아주는 희천시와 통천군기동예술선동대원들의 힘있는 경제선동활동으로 하여 공사속도는 더욱 높아지게 되였다.

김옥별

정신력을 북돋아주며

맹렬한 집중경제선동은 락랑—력포지구 건설장에서도 벌어지였다.

만경대구역과 문천시, 정주시기동예술선동대원들은 20일동안에 총 150여회에 걸쳐 2만 1 000여명을 대상으로 경제선동활동을 벌려 건설자들을 위훈과 혁신에로 힘있게 고무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람들의 사상과 심장을 움직이는 예술은 세계를 변혁하는 혁명투쟁의 위력한 무기이다.》

만경대구역기동예술선동대원들은 태양의 성지에서 살며 일하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경제선동을 특색있게 벌렸다.

날마다 만경봉의 샘물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정속에 널리 이름난 룡악산샘물도 안고와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며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건설을 하루빨리 끝내고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자고 절절히 호소한 기동예술선동대의 경제선동은 건설자들의 심장마다에 불을 지펴주었다. 혁신자들의 사진을 찍어 영예게시판에 소개하는 한편 가족들에게도 보내주는 이들의 아름다운 소행은 온 건설장에 혁신의 불바람을 더욱 세차게 일으켰다.

문천시기동예술선동대원들은 비바람이 불면서 불리한 날씨가 계속되는 속에서도 건설자들과 함께 현장을 떠나지 않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일도 하면서 경제선동을 순간도 멈추지 않았다. 수많은 전투소보를 발간하고 10개 단위의 건설자 수천명을 대상으로 50여회에 걸쳐 진행한 이들의 전투적인 경제선동활동은 건설자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정주시기동예술선동대원들은 불리한 정황이 조성되였을 때 삽과 맞들이를 들고 현장에 뛰여들며 격동적인 선동을 진행하였다. 미더운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의 전투적인 경제선동활동은 앞으로도 줄기차게 이어질것이다.

본사기자

초소의 군인들을 마음에 두고

옹진광산의 일군들과 종업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군대에 대한 원호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리는 과정에 군민관계도 더욱 두터워지고있는데 사회적으로 인민군대를 원호하는 사업을 더 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옹진광산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인민군군인들을 친혈육의 정으로 적극 원호하고있다.

몇해전 뜻깊은 전승기념일을 맞을 때였다.

광산초급당비서 홍산호동무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인민군군인들은 우리의 생명이며 생활인 사회주의조국을 철옹성같이 지켜싸울 열의에 넘쳐있습니다. 군인들과 한전호에 선 심정으로 인민군대원호사업에 우리의 모든것을 다 바칩시다.》

초급당비서의 호소는 대중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광산에서는 일군들이 종업원들속에 들어가 모두가 친혈육의 심정으로 인민군대원호사업을 잘해야 조국이 든든하고 우리의 행복도 담보된다는것을 실감있게 해설해주면서 이 사업에서 모범인 종업원들의 소행을 널리 소개선전하도록 하였다.

특히 국가적명절과 기념일마다 인민군군인들에게 성의껏 마련한 원호물자를 보내주는 사업을 적극 내밀면서 이 과정을 통하여 모든 종업원들이 조국의 방선을 철벽으로 지키고있는 인민군군인들과 혈육의 정을 더욱 두터이 하도록 하였다.

이 나날에 광산의 종업원들속에서는 인민군대원호사업을 공민의 숭고한 본분으로 여기고 군대를 위한 일이라면 자기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소행들이 수많이 발현되였다.

광산의 어느 한 갱에서 소대장으로 일하는 유상록동무는 제대군인이다.

지난 기간 어버이수령님을 천세만세 높이 모시기 위한 사업에 뜨거운 마음과 지성을 바쳐온 그는 한부대에서 복무한 안해인 강금희동무와 함께 인민군대원호사업에도 앞장섰다. 그들 부부는 국가적명절과 기념일마다 원호물자들을 성의껏 마련하여 군인들에게 보내주군 하였다.

지난 기간 주체의 최고성지인 금수산기념궁전을 더 잘 꾸리기 위한 사업에 뜨거운 지성을 바쳐온 소대장 김영만동무는 618건설돌격대원들을 성의껏 도와주어 그들이 맡은 일을 더 잘하도록 고무해주면서 인민군군인들을 원호하는 사업에도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였다. 그는 세면도구를 비롯한 많은 생활필수품을 마련하여 군인들에게 보내주어 그들이 군사복무의 나날을 위훈으로 수놓아가도록 하는데 이바지하였다.

군인들로부터 우리 어머니로 불리우는 리선녀동무는 초소에선 자식을 위하는 마음으로 군인들에게 보내줄 원호물자마다에 뜨거운 지성을 바치였다. 그의 가정에 있는 부피두터운 원군일기장은 그가 군인들을 위해 기울인 순결한 마음을 잘 보여주고있다.

이밖에도 정성진, 안효식, 정근영동무들을 비롯한 광산의 수많은 종업원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초소의 인민군군인들을 성심성의껏 원호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긍지를 안고 조국의 방선을 철벽으로 지켜가고있는 인민군군인들은 우리모두의 친혈육이다.

광산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누구나 이런 마음으로 군인들을 위해 자기의 지성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오늘도 광산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높이 받들고 인민군대원호사업을 줄기차게 벌려나가고있다.

특파기자 리승철

우리 인민들에게 문화정서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 화초연구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평양화초연구소에서—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늘 아름다운 꽃을 피워놓고

혜산시제1인민병원에서

얼마전 휴양소처럼 아담하게 꾸려진 혜산시제1인민병원을 찾은 우리는 이곳에서 아름답고 풍만한 정서를 한껏 느낄수 있었다. 의사실들과 치료실, 입원실마다에는 청신하고 향기로운 갖가지 화분들이 놓여있어 늘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이 있는 곳에는 풍만한 정서가 있고 정서가 넘치는 곳에는 들끓는 생활과 투쟁이 있다.》

겨울이 긴 이 고장에서 화분을 사시장철 가꾸는것은 헐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병원의 의료일군들은 봄이면 화분의 묵은 흙을 털어내고 겨울철에 방안온도가 내려갈세라 온도계를 주시하면서 화분관리에 온갖 정성을 기울인다.

병원에서 제일 화분이 많은 방은 신경과 의사실이다. 여기에 화분이 많은것은 과의 의사들이 남달리 꽃을 사랑해서만이 아니다. 호함진 꽃송이들과 짙은 향기, 거기에는 환자들에게 정성을 다해가는 이곳 의료일군들의 깨끗한 마음과 치료예방성과에서 기쁨을 찾는 남다른 긍지가 비껴있다.

정서와 랑만이 넘치는 이런 생활속에서 병원의료일군들의 사업성과도 나날이 늘어난다.

치료실들과 입원실들, 식당과 휴식장소, 탁구장을 비롯하여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잘 꾸려진 병원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감탄한다.

대중체육활동에서도 병원은 시적으로 모범이다.

환자치료를 비롯한 말은 일을 더 잘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나갈 열의에 넘쳐있는 의료일군들의 모습은 볼수록 미덥다.

병원의 초급당비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앞두고 병원에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보건일군들이 생활의 꽃을 활짝 피워갈 때 정성의 꽃도 더욱 아름답게 피울수 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였다.

특파기자 전철주

전통적인 중조친선의 강화발전에 이바지할것이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부주석 기자와 회견

우리 나라를 방문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부주석 진종흥이 귀국에 앞서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하였다.

그는 조선을 방문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방문기간 조선인민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여기에서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

국제친선전람관을 참관하고 받은 인상이 매우 크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주신 선물들이 전람관에 전시되여있다. 참관을 통하여 그분들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흠모심을 잘 알수 있었다. 중국과 조선은 산과 강이 잇닿아있는 친선적인 린방이다.

중국의 로세대혁명가들과 김일성주석께서는 공동의 위업실현을 위한 투쟁속에서 중조친선을 마련하여주시였다.

이 친선관계는 호금도총서기동지와 김정일동지의 깊은 관심속에 날로 발전하고있다.

중조 두 나라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중조친선은 피로써 맺어진것이다. 이것은 두 나라 당과 정부, 인민에게 있어서 귀중한 재부로 된다.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는 중조친선은 불패의 힘을 가지고있다. 중국인민은 이것을 중시하고있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는 앞으로도 전통적인 중조친선의 강화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할것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받들고 조선인민이 생산과 건설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을 뜻깊게 맞이하리라고 확신한다.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는데서 틀어쥔 문제

신의주교원대학 일군들

학생들에 대한 교수교양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자면 교원들의 자질을 부단히 높이는것과 함께 교육조건과 환경을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원들의 실력을 끊임없이 높이고 자체의 힘으로 대학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여 학생들에 대한 교수교양사업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하고있는 신의주교원대학 일군들의 사업이 이것을 말해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교원의 자질이자 곧 교육의 질이고 학생들의 실력이라고 말할수 있다.》

몇해전 학년말시험이 끝났을 때였다. 학생들의 시험결과가 종합된 자료를 분석하던 학장 리도순동무의 생각은 깊었다. 전해에 비하여 학생들의 실력이 뛰여오른 학과목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학과목들도 있었기때문이였다.

원인은 어디에 있겠는가. 제기된 문제를 분석해나가던 그의 머리에 문득 떠오르는것이 있었다. 확실히 교원들의 자질과 관련되는 문제였다. 교원들의 과학리론수준과 교육실무적자질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학생들의 실력이 높아진다는것은 지난 기간의 경험이 잘 보여주고있었다.

물론 지난 시기 대학에서는 교원들의 자질향상문제를 당, 행정사업의 중심에 놓고 응당한 관심을 돌려왔었다.

회의때마다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는 문제가 토의된것은 사실이였다. 하다면 학생들의 실력에서 차이가 생긴것은 무엇때문인가.

물론 교원들의 수준차이도 있을수 있었다. 그러나 학장은 그보다는 교원들스스로가 자신의 실력을 높이기 위한 자질향상사업에 얼마나 관심을 돌리는가 하는것이 기본이라고 보았다. 학장은 이 사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키기로 결심하였다. 대학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교수교양사업에서 실적을 올리고있는 강좌들을 본보기로 내세우고 그 모범을 일반화하기로 하였다.

당조직에서는 학장의 결심을 적극 지지해주고 이 사업을 대학의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결의목표에 그대로 반영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학장, 초급당비서를 비롯한 일군들은 모든 교원들이 실력을 높이기 위한 목표를 뚜렷이 세우도록 하였다.

대학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력사강좌와 자연강좌를 본보기로 내세우고 모든 교원들이 학위학직을 소유하기 위해 분발하도록 힘있게 떠밀어주었다. 이와 함께 교육사업에서 높은 실적을 내고있는 10월8일모범교수자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그들의 모범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벌려나갔다.

이것은 대학에 자질향상의 된바람이 일어나게 한 하나의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강좌호상간, 교원들호상간에 자질을 높이기 위한 경쟁열풍이 세차게 이는 속에 모든 교원들이 하나를 가르치자면 열, 백을 알아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명심하고 실력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그 나날에 대학에서는 모범교수자대렬이 늘어나고 수십명의 교원들이 학위학직을 소유하게 되였다. 이렇게 교원들의 실력이 높아지니 교수교양사업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으며 학생들의 실력도 비할바없이 뛰여오르게 되였다. 그리하여 대학에서는 최우등생대렬이 해마다 늘어나게 되였다.

대학의 일군들은 교육조건과 환경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도 응당한 관심을 돌리였다. 오늘 대학에서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도서관과 원격강의실을 꾸려놓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자체의 힘으로 체육관건설도 힘있게 내밀면서 교육조건과 환경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내밀고있다.

이렇게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고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해나가는 과정에 대학에서는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게 되였으며 올해에는 2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기 위한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특파기자 송창윤

우리 나라의 양경일, 양춘성선수들 2011년 아시아레스링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쟁취

우리 나라의 양경일, 양춘성선수들이 2011년 아시아레스링선수권대회 남자자유형레스링 55㎏급경기와 66㎏급경기에서 각각 제1위를 쟁취하였다.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우즈베끼스딴의 따슈껜뜨에서 진행되고있는 이번 선수권대회에는 아시아의 20개 나라와 지역의 남, 녀선수 260여명이 참가하였다.

우리 선수들은 평시에 련마한 높은 기술과 완강한 투지를 발휘하면서 주도권을 틀어쥐고 드센 공격을 들이대여 결승경기들에서 일본, 우즈베끼스딴선수들을 보기 좋게 물리치고 금메달을 수여받았다.

한편 우리 나라의 리정명선수는 남자자유형레스링 60㎏급경기에서 제3위를 하였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대표단 귀국

부주석 진종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대표단이 20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최진수와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림시대리대사 리경강이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중국대사관 성원들 택암협동농장에서 친선로동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림시대리대사 리경강과 대사관성원들이 19일 순안구역 조중친선택암협동농장에서 친선로동을 하였다.

손님들은 농장의 연혁을 들은 다음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자각을 안고 당면한 영농작업을 다그치고있는 농장원들을 도와 모내기를 하였다. 쉴참에 그들은 농장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선의 정을 두터이 하였다.

림시대리대사는 김정일총비서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농장원들이 올해 농사에서 좋은 작황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하였다.

대사관성원들은 농장에 지원물자를 넘겨주었다.

【조선중앙통신】

탄부들을 위하는 뜨거운 마음

개천탄광 종합영양제식당 종업원들이 탄부들의 식생활개선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오금옥, 김미순동무를 비롯한 종업원들은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을 지피는 석탄생산에 자기들의 땀방울도 비껴있다는 자각을 안고 자체의 힘으로 여러 정보의 새땅을 일구고 집짐승도 많이 기르면서 탄부들의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고있다.

그들은 해마다 많은 량의 남새를 생산하고 고사리와 두릅을 비롯한 산나물도 채취하여 잘 저장해두었다가 탄부들의 식탁에 놓아주군 한다.

영양가높은 콩음식도 자주 만들어주며 탄부들의 건강에 깊이 마음쓰는 종합영양제식당의 종업원들, 당의 은정이 그대로 탄부들의 마음속에 스며들도록 하기 위해 아글타글 애쓰는 그들을 두고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우리 어머니, 우리 누이라고 정답게 부르며 따르고있다.

종합영양제식당 종업원들의 뜨거운 마음에 떠받들려 탄광에서는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고있으며 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할 석탄산은 더 높아가고있다.

로농통신원 전순희

빛나는 예지로 조국통일의 진로를 밝혀주시여

오늘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은 위대한 사상과 가장 정확한 로선을 따라 승리적으로 전진하고있으며 그 정당성과 생활력은 날을 따라 더욱 높이 과시되고있다.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이 이처럼 승리의 한길로만 전진할수 있는것은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민족의 화합과 단결, 조국통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분렬의 력사가 시작되던 해방후의 복잡다단하던 그 시기 조국통일문제의 본질을 명백히 밝혀주심으로써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이 처음부터 뚜렷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하도록 해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는 탁월한 사상과 령도로 조국통일위업을 개척하시고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튼튼한 토대를 닦으시였으며 조국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시였다.》

해방후 미국의 남조선강점과 민족분렬책동으로 조성된 당시의 정세는 조국통일문제의 본질을 옳게 해명하고 그에 기초한 로선과 정책을 시급히 제시할것을 요구하고있었다. 하지만 해방후 여기저기에서 나타난 《혁명가》, 《애국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저들의 정치적야심을 실현하기 위해 대중을 유혹하며 돌아쳤을뿐 누구도 미국의 침략적목적과 민족분렬정책에 대해 간파하지 못하고있었다. 지어 일부 사람들은 미국을 《해방자》로 생각하고있었다.

우리 나라에서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의 위험이 조성된 현실을 내외에 알리고 그 근원은 어디에 있으며 그로부터 제기되는 조국통일문제의 본질을 어떻게 규정할것인가 하는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성격과 근본목적을 정확히 밝히고 그 전략과 원칙, 방도를 정립하기 위한 선차적이면서도 원칙적인 문제로 제기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시대적요구로부터 출발하시여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통찰력, 예리한 정치적안목으로 조선분렬의 근원과 조국통일문제의 본질을 명석하게 밝혀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조선의 분렬은 우리 민족내부의 모순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세에 의하여 초래된것이며 직접적으로는 미국이 교활한 방법으로 38°선분할안을 조작하고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한데서 초래된것이라는것을 론박할 여지없이 까밝혀주시였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한강토에서 단일민족으로 살아오면서 자기의 민족성을 고수하여온 자랑스러운 민족이다. 더우기 우리 나라는 남을 침략한 나라도 아니고 전패국도 아니며 자체의 힘으로 민족의 해방을 쟁취한 당당한 독립국가였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그 어떤 외부세력에 의하여 둘로 갈라져야 할 그 어떤 리유나 근거도 없었다.

그러나 미국은 남조선을 무력으로 타고앉아 그곳을 발판으로 하여 전조선을 강점할 흉악한 계책밑에 구일본군의 《무장해제》를 구실로 내대며 38°선이남지역에 저들의 침략무력을 들이밀었다. 미국의 이런 파렴치한 책동에 의하여 우리 조국에는 38°선을 경계로 하여 국토가 둘로 갈라지는 비극적사태가 빚어지게 되였다.

일부 사람들이 미국을 《해방자》로 보면서 그에 대한 환상과 기대를 가지고있던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현실을 명백히 꿰뚫어보시고 조선분렬의 근원을 정확히 밝히심으로써 북과 남의 전체 인민들이 투쟁의 과녁을 바로 정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가 분렬된 근원을 밝히신데 기초하여 조국통일문제의 본질을 과학적으로 천명하시였다.

민족분렬의 첫 시기 각이한 정치세력들은 자기들의 리해관계로부터 출발하여 자체의 정치적견해들을 들고나왔으며 이것은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 커다란 장애로 되였다.

이러한 때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안팎에 조성된 정세를 깊이 분석, 총화한데 기초하시여 조국통일문제의 본질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며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전민족의 단합을 실현하는것이라는데 대하여 과학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문제의 본질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밝혀주신것은 조국통일운동의 기본과녁과 목표를 가장 정확히 제시하신것이였다.

이것은 무엇을 지향하여 조국통일운동을 벌려나갈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문제의 본질에 관한 사상은 나라와 민족의 완전자주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철저한 민족자주의 사상과 통일조국의 부강발전과 전민족의 륭성번영을 위한 참다운 애국애족의 사상을 구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오늘도 조국통일의 초석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분렬의 근원과 조국통일문제의 본질에 관한 완벽한 해명을 주심으로써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과 각 정치세력들이 일치한 견해를 가지고 단합하여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사상리론적예지의 손길에 이끌려 우리 인민들은 침략자 미제의 남조선강점을 반대배격하면서 단합된 힘으로 통일적인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궐기해나서게 되였다.

해방후 그처럼 복잡다단한 정세속에서 조국통일운동의 진두에 서시여 우리 민족에게 조국통일운동의 진로를 명시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리성호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 지지

핀란드인사 담화 발표

핀란드조선협회 위원장 안띠 씨까 아호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지지하여 10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반통일세력들의 온갖 방해책동을 물리치며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1980년 10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시하시였다.

이 방안은 북남제도의 공존을 전제로 하고 어느 일방의 리익도 침해하지 않는것으로 하여 수십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가장 정당하고 현실적인 통일방안으로 되고있다.

조선의 통일을 빨리 실현할수 있는 최선의 방도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의 민족통일국가를 창립하는것이다.

조선반도의 분렬과 함께 존재하게 된 북과 남은 결코 자기의 제도와 사상을 포기하려 하지 않고있다.

때문에 남조선당국의 《제도통일론》은 허황한 망상에 지나지 않으며 종당에는 북남대결과 파괴적인 전쟁, 동북아시아의 불안정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선군령도를 받고있는 조선의 사회주의제도는 날로 강화발전되고있다.

조선통일의 가장 합리적이고 빠른 방법은 련방제통일이며 이 방안은 조선반도와 주변의 현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한 공명정대한 방안이다.

남조선당국은 반공화국대결정책에 계속 매여달릴것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화제의에 응해나와야 하며 통일에 이바지할수 있는 옳은 정책을 실시해야 할것이다.

조선은 반드시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 따라 통일되여야 한다.

평화를 사랑하고 자주성을 지향하는 조선인민은 가까운 앞날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성대국을 일떠세울것이다.

방글라데슈단체 불레찐 발행

6.15북남공동선언발표 11돐에 즈음하여 방글라데슈주체사상연구소에서 9일 불레찐 《6.15통일시대》를 발행하였다.

불레찐은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2000년 6월 조선의 평양에서는 민족분렬 55년만에 처음으로 북남수뇌상봉이 이루어지고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이 채택발표되였다.

선언은 발표되자마자 조선의 북과 남, 해외 온 겨레의 열렬한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때부터 조선민족의 통일위업수행에서는 극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북과 남사이에 여러 분야에 걸쳐 대화와 실무접촉들이 진행되고 겨레의 념원과 리익을 우선시하는 립장에서 공동의 합의들이 이루어짐으로써 민족의 단합과 협력, 교류가 추진되고 통일지향적인 결실들이 맺어졌다.

그러나 현 남조선보수당국은 조국통일3대원칙을 구현한 6.15공동선언을 부정하다 못해 조선의 폭넓은 대화제의에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대결전쟁책동을 강화하는것으로 대답해나서고있다.

북남공동선언을 통일의 리정표로 삼고 끝까지 리행해나가려는 전체 조선민족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조선민족은 6.15북남공동선언의 기치아래 반드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6.15공동선언발표 11돐기념 통일토론회

일본에서 진행

6.15공동선언발표 11돐기념 통일토론회가 16일 일본 도꾜에서 진행되였다.

조국평화통일협회 부회장 윤벽암, 고문 박희덕, 총련중앙상임위원회 국제통일국 국장 서충언, 총련일군들, 재일동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중국 청화대학 초빙교수 정기렬, 잡지 《통일평론》 편집국장 최석룡, 조선신보사 편집국 부국장 김지영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6.15공동선언발표이후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며 조국통일운동을 줄기차게 벌려왔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에 리명박 《정권》이 집권한 이후 공동선언리행이 시련을 겪고있으며 조선반도에는 전쟁위기가 격화되고있다고 그들은 피력하였다.

그들은 자주, 민주, 통일세력이 련대, 단합하여 남조선현 《정권》의 파쑈독재통치를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집권세력의 반역통치를 반대하는 투쟁 전개

남조선의 민주로총과 《로동자민중의 희망 서울련대》가 16일부터 서울에서 로동자, 학생, 시민 등 각계층이 참가하는 차별철폐대행진을 벌리고있다.

행진시작에 앞서 단체들은 모임을 가지였다.

모임에서 발언자들은 현 집권세력이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부자를 더 부유하게 만드는 반역통치를 일삼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이를 등대고 기업체들이 비정규직을 대대적으로 늘이고 로동자들의 생존을 더욱 렬악한 지경에로 몰아가고있다고 그들은 비난하였다.

그들은 각계층이 생활임금보장, 로동기본권과 민중생존권쟁취, 반전평화실현 등을 위해 대행진을 벌릴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로조들을 탄압하고 로동자들을 부당하게 해고처리하는 현 《정권》과 업주측의 죄행을 낱낱이 까밝히고 그들의 중지를 요구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이어 모임참가자들과 각계층 인민들은 대행진에 돌입하였다.

광주봉기정신으로 반역패당 심판에 나설것을 주장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이 광주인민봉기 31돐에 즈음하여 18일 론평을 발표하였다.

론평은 광주민중항쟁은 남조선을 파쑈독재와 폭정의 란무장으로 전락시킨 《유신》체제에 대한 민중의 분노의 폭발이며 자주, 민주, 통일열망의 분출이라고 밝혔다.

당시 미제의 부추김을 받은 전두환파쑈일당은 중무장한 살인귀무리를 내몰아 항쟁참가자들을 땅크로 깔아죽이고 총으로 쏘아죽이고 칼로 찔러죽이며 광주를 피바다에 잠그었다고 론평은 단죄하였다.

론평은 광주민중항쟁은 사회의 민주화와 민족의 자주통일은 누가 가져다주는것이 아니라 투쟁으로 쟁취해야 한다는 력사의 진리를 새겨주었다고 주장하였다.

항쟁이 있은 때로부터 31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현 《정권》은 학살의 주범이 거리를 돌아치도록 하고 좋게 발전하던 남북관계를 과거의 대결시대로 몰아갔다고 론평은 규탄하였다.

론평은 5.18항쟁참가자들의 뜻을 이어 시대에 역행하는 현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파쑈독재망령을 되살리는 행위를 비난

남조선신문 《한겨레》가 17일 《5.16쿠데타망령을 되살리려는 리유》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리승만을 내세우려고 기승을 부리던 보수세력과 언론들이 이번에는 심복의 총에 맞아죽은 박정희를 공공연히 찬양해나서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 리유가 래년 《선거》들을 앞두고 재집권의 길을 닦기 위한것임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고 사설은 지적하였다.

사설은 4.19봉기의 성과를 압살한것으로 하여 지금까지 민중의 비난을 받았던 박정희의 군사정변이 찬양될 경우 민중의 반독재민주화투쟁이 오히려 《정변》으로 버림받게 될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지금 보수세력이 박정희가 경제를 발전시킨듯이 묘사하며 따라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민주에 대한 억압과 독재가 불가피하다고 줴쳐대고있다고 사설은 규탄하였다.

그러나 실지 박정희의 경제정책은 물가상승, 저임금구조강화, 농촌파괴 등을 불러왔으며 이로 하여 초래된 사태의 처리를 위해 폭압과 학정이 뒤따르게 되였다고 사설은 강조하였다.

사설은 그때가 어떠했는가를 알고싶다면 굳이 책을 뒤질 필요가 없이 고물가와 저임금, 부동산투기, 대기업과 부자중심정책 그리고 반인권경찰 등 모든 부문에서 그때 모습이 재현되고있는 리명박 《정부》하의 현실을 살펴보면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박정희와 마찬가지로 리명박도 벌써부터 측근들의 정치적배격을 당하고있다고 사설은 밝혔다.

사설은 5.16망령을 불러오는 보수세력이 더는 민중을 우롱하지 말것을 요구하였다.

살인적인 로동에 내몰리던 로동자 사망, 로동자들 항의

남조선에서 3일 파주건설업체에서 일하던 건설로조 포항지부 로조원 조명수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일자리를 찾아 헤매다가 지난 3월 이 건설업체에 취업한 그는 렬악한 로동조건속에서 하루 17시간이상의 로동을 강요당하였다.

이 업체는 지난해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내여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악명을 떨쳤다.

지옥같은 건설현장에서 지난 4월에도 50대 녀성로동자가 과로로 목숨을 잃었으며 5월에는 로동자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났다.

그러나 그때마다 업주측은 저들의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사죄할 대신 오히려 본인의 부주의니 뭐니 하며 책임을 회피하여왔다.

악질건설업체의 살인행위에 격분한 남조선의 건설산업련맹소속 로동자들은 13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건설현장들에서 로동자들이 죽음을 강요당하고있는 비참한 현실을 개탄하였다.

업주측이 마땅히 책임을 지고 유가족들에게 사죄, 보상할것을 그들은 요구하였다.

그들은 전지역의 건설로동자들이 억울하게 숨진 로동자들의 피의 대가를 받아내기 위해 싸울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기자회견참가자들은 《끝까지 싸워서 피해자의 한을 풀자!》, 《건설로동자사망사고 사죄하라!》, 《유가족에게 사죄하고 사태를 해결하라!》 등의 구호를 웨치며 업주들의 살인범죄행위를 단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보수당국의 반인민적악정을 단죄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본격화되는 진보세력의 통합움직임

최근 《재보충선거》에서 커다란 승리를 이룩한 남조선의 야당들이 그 기세로 래년도의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을 반드시 타승함으로써 파쑈독재 《정권》을 기어이 끝장낼것을 다짐하며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고있다.

보수패당을 심판하고 래년에 《정권》교체를 실현하자면 보수세력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반드시 힘을 합쳐야 한다는것이 이번 《재보충선거》를 통해 가지게 된 진보세력들의 일치한 견해이다. 이런데로부터 지금 그들은 정당들사이의 정책적차이가 《한나라당》의 재집권을 막는것보다 더 우위에 있을수 없다고 하면서 정책적공통점이 많은 민주로동당, 진보신당 등이 먼저 하나의 단일정당으로 통합하고 그 다음 민주당, 《국민참여당》과의 《선거》련합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이것이 바로 남조선의 진보세력이 들고나오는 《선 진보대통합, 후 민주대련합》론이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민주로동당, 진보신당은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건설을 위한 대표자련석회의》를 열고 새로운 진보정당건설을 위한 협의체를 공식 내왔다.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들도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힘》준비위원회를 비롯한 련합추진기구들을 내오고 각 야당들의 련대련합을 적극 추동하고있다.

한편 민주당은 야당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을 포괄적으로 망라하는 《단일정당창당론》을 주장하면서 그 준비사업을 본격적으로 다그치고있다. 지난해 12월 련합추진사업을 전문으로 맡아보는 특별위원회를 내온 민주당은 다른 야당들과 정기적으로 정책련합문제를 적극 론의하기로 하였으며 6월중에 진보정당들과의 정책합의안을 마련하고 10월까지는 각 야당들과 련합방안을 합의한다는 일정표까지 발표하였다. 그런 가운데 지난 11일 《국회》교섭단체대표연설에 나선 민주당대표는 이번 《재보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은 당국의 그릇된 정책, 갈등과 분렬의 정치를 바꾸어야 한다는 변화의 열망이였다고 평하면서 반드시 혁신과 통합으로 변화를 이끌어나가겠다고 다짐하였다.

과거의 교훈으로부터 야당들은 진보세력들의 단합을 실현할 때에만 보수세력의 공세를 짓부실수 있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렇기때문에 련대련합실현에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서고있는것이다.

지난 시기 남조선의 야당들은 련대련합으로 좋은 성과를 거둔 경험을 가지고있다. 지난해 《지방자치제선거》당시 민주당과 민주로동당, 《국민참여당》 등은 《공동지방정부구성》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광역자치단체 16곳가운데 11곳, 기초자치단체 228곳가운데 60곳에서 후보단일화를 실현함으로써 《한나라당》패거리들에게 쓰디쓴 참패를 안겨주었다.

비록 지금 련대련합의 형식과 방법 등에서 일부 견해차이가 있지만 보수《정권》을 거꾸러뜨리고 《정권》교체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다같이 공감하고있다.

지금 진보세력은 래년도의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올해 6월말을 전후로 하여 각 당 및 단체들의 결정을 거치며 9월까지는 광범위한 진보세력들이 참가하는 새로운 정당을 건설할것을 목표로 활발하게 움직이고있다.

남조선의 전반적인 민심과 여론도 진보세력들의 련대련합을 강하게 요구하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부동층이 거의 40%로서 각 당의 지지률보다 크게 앞서고있다. 이러한 가운데 다음해의 《선거》들에서 진보세력들이 련대련합하여 단일후보를 내세우는 경우 그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근 50%로서 보수세력단일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보다 훨씬 높다. 이러한 민심동향은 진보세력들의 련대련합을 적극 추동하고있다.

얼마전 5.1절기념대회에서 민주로동당대표는 《진보대통합을 간절히 원하는 민중의 목소리를 따르는것이 진정한 진보의 자세》라고 강조하면서 《진보가 통합과 련대의 능력이 있다는것을 반드시 민중앞에 보여주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를 위해 로동자들의 기본권을 지키겠다고 하는 어떤 정당과도, 어떤 세력과도 더욱 폭넓게 련대해나가겠다고 하면서 《희망을 되찾은 민중의 힘, 합쳐진 야당들의 힘은 〈한나라당〉보다 훨씬 강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민주로총도 5.1절기념대회에서 로동자들이 단결된 힘으로 《진보정치대통합의 기관차》가 되겠다고 하면서 《제2의 로동자정치세력화》를 선언하였다. 민주로총은 지금 로동자대중에 튼튼히 뿌리내린 진보정당건설을 위해 10만명의 당원대렬확보와 기층조직건설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진보세력의 단합된 힘으로 반역《정권》을 기어이 심판하려는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의 의지의 발현으로 된다.

보수세력을 권력의 자리에서 몰아내기 위한 진보세력들의 앞으로의 련대련합움직임이 주목된다.

본사기자 허영민

민족반역자들은 파멸을 면할수 없다

까자흐스딴고통련 성명 발표

까자흐스딴고려인통일련합회(까자흐스딴고통련)가 16일 《체제대결은 조선반도의 전쟁밖에 가져올것이 없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최근 남조선의 리명박역도가 도이췰란드에 가서 동포간담회와 기자회견 등을 벌려놓고 공화국의 핵이 통일에 지장을 준다고 하면서 《포기》니 뭐니 하고 줴쳤는가 하면 함선침몰사건과 연평도사건에 대한 《사과》를 지껄여대고 지어 과거 반공화국모략사건까지 거들며 그 무슨 《도발에 대한 응징》을 떠벌인데 대해 비난하였다.

성명은 이 모든것은 한마디로 리명박역도패당에게 진정한 통일의지가 없다는것을 보여준다고 까밝혔다.

동족을 적대시하며 외세와 야합하여 한사코 대결을 추구한다면 북남관계는 절대로 개선될수 없다고 성명은 지적하였다.

성명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높이 들고 서로 힘을 합쳐 반통일세력의 온갖 책동을 짓부시며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반공화국대결망언 규탄

재로조선공민중앙협회가 최근 리명박역도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도전적망발을 줴친것과 관련하여 15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리명박이 도이췰란드행각당시 《북의 비핵화가 통일의 선결조건》이라느니 뭐니 하고 줴쳤는가 하면 함선침몰사건과 연평도포격사건에 대한 그 누구의 《사과》를 떠들며 반공화국대결책동을 정당화하는 악담들을 늘어놓은데 대해 언급하였다.

리명박이 밖에 나가서까지 앞뒤를 가리지 않고 북을 걸고드는 못된 망발을 해댄데 대해 경악을 금할수 없다고 성명은 단죄하였다.

성명은 리명박이 반공화국대결을 고취하기 위해 수많은 모략극을 조작하고 북의 폭넓은 대화제의에 전쟁연습소동으로 대답해나섰다고 규탄하였다.

성명은 리명박이 이제라도 4.27보충선거를 통해 보여준 남조선의 민심이 무엇인가를 똑바로 알고 더이상 외세의존과 반공화국대결책동에 매달리지 말것을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대결정책을 반영한 개각놀음

얼마전 남조선집권자가 《선거》패배로 인한 사태를 수습한다고 떠들면서 개각놀음을 벌려놓았다. 남조선보수패당이 집권후 여러차례에 걸쳐 개각을 단행했지만 그것은 어느것이라 할것없이 분노한 민심을 달래고 통치위기에서 헤여나기 위한 기만술책의 발로였다. 이번에도 그것은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괴뢰들의 이번 개각놀음에 대해 한가지만은 문제시해야 할것이 있다. 그것은 극악한 대결광신자인 현인택을 통일부 장관자리에 그대로 남겨놓은것이다. 남조선당국자가 현인택역도를 류임시킨것은 보수《정권》의 《대북정책》에서 달라질것은 조금도 없으며 괴뢰들이 반공화국대결책동을 계속 악랄하게 벌리려 한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알려진것처럼 남조선보수패당은 지금껏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면서 그에 배치되는 반통일대결정책을 악랄하게 추진함으로써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상태에로 몰아넣었다. 반역도당은 그 무슨 《끌려다니는 대화》니, 《퍼주기》니 하면서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사업을 모조리 파탄시키였다. 한편 함선침몰사건과 연평도사건과 같은 특대형모략극을 꾸며내고 그것을 구실로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전쟁도발책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므로써 북남사이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극도의 군사적대결상태를 조성하였다.

남조선보수당국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의 맨 앞장에 현인택역도가 서있었다는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다. 이른바 《기다리는 전략》과 《원칙고수》를 부르짖으며 반통일대결정책을 고집한것도 이자이고 이미 다 해결된 《3대조건》을 앵무새처럼 외우며 금강산관광재개를 거부한것도 이자이며 함선침몰사건과 연평도사건에 대한 그 무슨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따위를 전제조건으로 계속 내걸면서 북남관계개선을 집요하게 가로막고있는것도 역시 이자이다.

현인택은 지어 남조선집권층내부에서 《대북정책》의 《실효성》과 관련한 비난들이 울려나올 때에도 그에 귀를 틀어막고 제밸대로 놀아댔다.

남조선보수당국의 동족대결책동에 의해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가 이제는 전쟁접경에 이른 엄중한 현실은 남조선 각계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분노한 남조선의 각계 통일운동단체들과 인민들은 보수당국이 대결정책을 철회하고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의 길에 조건없이 나서며 그것을 가로막는 반통일분자들을 제거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얼마전 남조선에서 진행된 《재보충선거》결과와 로동자들의 5.1절투쟁은 보수패당의 동족대결책동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얼마나 강한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선거》패배와 반역《정권》심판을 목표로 기세를 올리는 진보세력의 투쟁으로 바빠맞은 남조선집권자는 《민중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느니 뭐니 하고 횡설수설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극도에 달한 통치위기를 모면하고 동족대결책동을 계속 강행하기 위한 기만술책에 지나지 않았다. 남조선 각계의 한결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집권자가 이번 개각놀음에서 현인택을 류임시킨 사실자체가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이번 개각놀음을 앞두고 북남관계를 풍지박산내고 조선반도에 전쟁위험을 몰아온 반통일분자들을 장관자리에서 제거하고 동족대결정책을 철회할것을 일치하게 주장하였다. 현인택을 장관자리에서 몰아낼데 대한 요구는 특별히 높았다.

남조선의 진보적언론들도 현 북남관계파국의 전적인 책임은 통일부 장관인 현인택에게 있다고 하면서 그의 해임은 북남관계개선을 위해서도 현명한 처사로 된다고 하였다.

원래 개각전부터 여론의 가장 큰 비난을 받은 통일부 장관은 교체대상의 첫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남조선집권자는 여론의 강력한 요구를 무시하고 그 누구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수 있다.》고 떠들며 현인택을 장관자리에 다시 눌러앉히였다.

지금 남조선 각계는 현인택을 류임시킨것은 당국이 대결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속심을 드러내보인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망동을 준렬히 규탄하고있다.

남조선의 어느 한 신문은 보수당국의 개각놀음을 평하면서 민중의 의사에 따라 반드시 제거되여야 할 현인택이 류임된것은 독재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대북강경정책》을 계속 추진하려는 의도의 발로라고 비난하였다.

다른 한 신문은 현인택이 통일부 장관자리에 남게 된것은 그에게는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북남관계에는 큰 불행이 아닐수 없다고 하면서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고 평하였다.

남조선당국의 이번 개각놀음은 민심에 대한 악랄한 도전으로서 북남관계개선을 거부하고 우리와 기어이 맞서보려는 보수패당의 반통일적흉계를 다시한번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민심에 역행하면서 동족대결책동에 끝까지 매달리려는 남조선보수패당의 망동은 이제 더 큰 대중적항거에 부딪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장윤남

반제, 반지배주의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불멸의 업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수령님은 그이께서 지니신 위대한 사상과 특출한 령도력, 숭고한 인간적풍모로 하여, 그이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위대한 업적으로 하여 그 누구도 지녀본적이 없는 최고의 권위를 지니시고 세계 수억만 사람들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를 받고계십니다.》

력사의 갈피에는 인류의 자주위업에 헌신하고 공헌한 위인들이 적지 않게 기록되여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과 같이 그 어느 위인도 따를수 없는 세계혁명의 탁월한 령도자로서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절세의 위인은 동서고금에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류의 자주위업에 쌓아올리신 빛나는 업적가운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제국주의를 비롯한 온갖 지배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할데 대한 탁월한 사상리론을 제시하시고 정력적인 활동으로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반제, 반지배주의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신것이다.

여기에 한가지 사실이 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한 우리 인민이 전후복구건설에 떨쳐나섰던 어느해였다. 당시 유럽의 어느 한 큰 나라 당에서 우리 나라에 편지를 보내여왔다. 편지내용은 미국이 조선전쟁에서 세균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니 우리 공화국이 이 문제를 가지고 복잡성을 조성하여 국제정세를 긴장시키지 말아달라는것이였다. 그야말로 어불성설이였다. 미제가 조선전쟁에서 세균무기를 사용하였다는것은 세상이 다 알고있는 엄연한 사실이였다. 우리 나라에 왔던 국제조사단까지 미제의 세균전에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과학적인 증거를 들어 그들의 치떨리는 세균전만행을 세계앞에 적라라하게 고발하였다.

이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나라 당은 남의 나라 내정에 간섭하는 편지를 보내왔던것이다.

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존엄있는 우리 당의 자주권을 짓밟으려는것을 추호도 묵과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의 단호한 립장을 천명하도록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세균무기를 조선전쟁에서 거리낌없이 사용한 미제의 흉악한 정체를 세계면전에서 낱낱이 폭로하도록 하시였다. 대국주의자들은 여기서 마땅히 교훈을 찾아야 하겠으나 그후에도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두고 온당치 못하게 이러쿵저러쿵하였다. 그들은 조선이 평화적건설을 하자면 정세를 너무 긴장시키지 말아야 한다느니, 조선에서 공장을 지나치게 많이 지으려고 한다느니 뭐니 하면서 내정간섭적인 행동을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의 강경한 자주적립장을 천명하시여 그에 타격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만무례한 지배주의자들의 머리우에 철추를 내리시였을뿐아니라 지배주의의 본질과 그 표현형태, 지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성과적으로 벌리기 위한 방도들을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주체67(1978)년 9월 9일 평양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돐기념 중앙경축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경축대회에는 세계 5대륙에서 온 여러 나라 당 및 국가, 정부수반들을 비롯하여 100여개 대표단들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경축대회의 높은 연단에 오르시여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라는 력사적인 보고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국가활동에서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며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문제와 함께 적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방도에 대하여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발전도상나라들이 단결하여 제국주의를 비롯한 온갖 지배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할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지배주의의 본질은 다른 나라의 자주성을 유린하며 다른 민족과 인민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것이라고, 지배주의에는 공공연히 다른 나라들을 식민지로 만들고 로골적으로 억압하고 착취하는 형태도 있으며 여러가지 교활한 방법으로 다른 나라에 예속의 올가미를 씌워 지배하고 통제하는 형태도 있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시여 지배주의는 큰 나라에도 있고 비교적 작은 나라에도 있으며 자본주의나라에도 있고 그밖의 나라에도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마디로 말하여 나라의 크기와 사회제도에 관계없이 다른 나라를 통제하려는 나라는 다 지배주의세력이며 공개적인 방법으로든지 은폐된 방법으로든지 남을 지배하는것은 다 지배주의라고 정식화하시였다.

명철한 분석력과 과학적인 통찰력, 심오한 철의 론리로 일관된 위대한 수령님의 보고에 접한 경축대회참가자들은 감탄과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보고는 발표되자마자 세계적으로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여러 나라의 신문, 통신, 방송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보고를 경쟁적으로 보도하였으며 여러 나라 정계, 사회계, 학계의 저명한 인사들이 성명, 담화 등을 발표하여 수령님의 보고에 전적인 지지와 찬동을 표시하였다.

《자주권수호를 위한 투쟁의 강령적지침》, 《진보적인류를 크게 각성시킨 고전적정식화》, 《지배주의자들을 전률케 한 폭탄선언》…

이처럼 세계도처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보고에 대한 찬탄의 목소리들이 연방 울려나왔다.

지배주의의 진면모에 대한 고전적정식화, 그를 반대하여 투쟁할데 대한 사상리론, 그 과업과 방도, 이것은 천리혜안의 예지와 확고한 혁명적원칙성과 제국주의, 지배주의에 대한 비타협적투쟁정신, 비범한 담력과 배짱을 천품으로 지니신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내놓으실수 있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받아안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신심에 넘쳐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에 적극 떨쳐나섰다.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나라들과 인민들의 반제, 반지배주의투쟁은 날로 더욱 힘있게 벌어지고 많은 나라들이 자주성을 옹호하여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책동에 견결히 맞서나갔다.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은 세계도처에서 규탄배격받았으며 지난날과 같이 로골적으로 지배주의책동을 벌릴수 없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지배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할데 대한 사상리론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혁명실천을 통하여 뚜렷이 과시되였다.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커다란 변혁이 일어나고있다. 진보적나라들이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고있다. 쁠럭불가담 및 발전도상나라들의 대렬이 늘어나고 반제자주력량이 강화되였다. 그리하여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지배령역과 세력권이 줄어들고 그들의 지위가 약화되고있다.

이 력사적변천은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반제, 반지배주의사상과 로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정력적인 령도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오늘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는 인류의 투쟁을 진두에서 현명하게 이끄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더욱 가슴깊이 느끼면서 그이께 한없는 경모의 정을 표시하고있다.

일본의 한 신문은 **《김일성주석의 빛나는 업적은 불멸할것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김일성주석의 외교와 국제관계에 대한 견해는 매우 정당한것이였다. 〈국가나 민족들간에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있어서는 안된다.〉, 〈대국중심의 세계질서를 평등한 새 세계질서로 바꾸어야 한다.〉, 그이께서는 이렇듯 국제사회주의운동과 쁠럭불가담운동의 지도자적역할을 하시였으며 많은 업적을 남기시였다.》

그렇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류의 자주위업에 쌓으신 고귀한 업적은 력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이다.

본사기자 조성철

위대한 정치가, 전설적위인

우리 나라를 방문한 네팔 쩌우따리신문사 사장 가간 비스타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심을 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체류기간 금수산기념궁전과 만경대를 방문하였으며 평양시와 지방의 여러곳을 참관하였다.

이를 통하여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 쌓으신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주석께서는 인민을 이끄시여 조선의 해방을 이룩하시였다.

그이는 조선의 당과 국가, 군대의 창건자이시다.

그이께서 계시여 조선인민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영예롭게 수호할수 있었다.

가는 곳마다에서 우리는 주석의 위인적풍모와 령도의 현명성을 깊이 체득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청산협동농장을 거듭 찾으시여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을 제시하신 그이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게 하시였다.

사회주의위업과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분도 그이이시다.

하기에 진보적인류는 그이를 열렬히 흠모하고있는것이다.

김일성주석은 위대한 정치가, 전설적위인이시다.

이번에 우리는 경애하는 주석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성의껏 마련한 선물을 올리였다.

이것을 영광으로 간주한다.

조선인민은 **김일성**주석의 유훈을 받들고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을 다그치고있다.

자기의 정당한 위업실현을 위하여 헌신하고있는 조선인민의 앞길에 승리만이 있을것이라고 확신한다.

영국단체들
주체사상세계대회소집결정을 지지

영국주체사상연구소조와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가 주체사상세계대회소집에 관한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회 집행위원회 제13차 확대회의 결정을 지지하여 14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이 되는 다음해에 주체사상세계대회를 소집하는것은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는 주체사상세계대회가 2012년 태양절을 성대히 기념하는데 뜻깊은 기여를 하게 되리라고 확신한다.

대회는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며 자주성을 지향하는 진보적인류의 단결을 적극 도모할것이다.

우리는 영국에서 주체사상세계대회에 대하여 적극 소개선전하며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한 자랑을 안고 대회에 참가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친근하고 근면한 인민

신록이 짙어가는 화창한 계절에 나는 제14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조선에 왔다. 만나는 사람마다 친절하고 가는 곳마다 맑고 청신한 공기가 흐르는 평양의 모습은 나에게 참으로 깊은 인상을 주었다.

나는 이번에 두번째로 조선을 방문하였다. 19년전에 평양에 처음으로 와보았다. 그때의 소중한 추억을 안고 이번 방문길에 오른 나는 조선땅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현대적인 살림집들과 웅장화려하게 일떠선 기념비적건축물들, 현대화된 공장, 기업소들과 아름답게 단장된 정갈한 거리들…

이 놀라운 전변을 이룩한 조선인민이야말로 성실하고 재능있는 인민, 불굴의 정신력을 지닌 강의한 인민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나는 친선적인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조선인민이 경제강국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는것은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고있기때문이다.

존경하는 **김정일**령도자는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가 공인하는 위대한 정치가, 만민의 어버이이시다. 나는 이것을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진행된 그이의 중국방문과정을 통하여 더 잘 알게 되였다.

지난해 5월 우리 공사가 자리잡고있는 대련시를 방문하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중조친선과 중조경제무역관계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부어주시였다. 그때 신문과 텔레비죤, 방송에서는 그이의 동북지방방문소식이 련일 보도되였다. 비록 그이께서 우리 동북지방에 머무르신 시간은 길지 않았어도 온 중국땅이 그이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웠고 세계가 들끓었다.

위대한 령도자를 어버이로 모신 조선인민은 참으로 복받은 인민이다.

이번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에는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많은 기업체들이 참가하고있다. 이것만 놓고보아도 조선이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발전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는가를 잘 알수 있다.

우리가 이번에 조선에 온 목적도 조선과의 무역사업을 통해 중조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근면하고 친선적인 조선인민과 더욱 가까와지기 위해서이다.

중조친선관계는 두 나라로세대령도자들께서 마련하고 물려주신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재부이며 세계 그 어느 나라들사이의 관계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뜨거운 동지적우의와 의리의 관계이다.

력사의 온갖 풍파를 헤치면서 꿋꿋이 이어져온 중조친선은 오늘 호금도총서기를 비롯한 중국의 령도집단과 **김정일**령도자를 중심으로 한 조선로동당의 깊은 관심속에 날로 더욱 공고발전되고있다.

나는 우리 공사에서 생산되는 기계설비들이 가까운 이웃인 조선에 수출되여 조선인민의 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하고 우리 공사와 조선과의 무역거래가 더욱 활발해지며 중조친선이 보다 강화발전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한다.

료녕마이클집단주식유한공사
부총경리 공령홍

서방의 음모책동 비난

이란국회 의장 알리 라리자니가 최근 기자회견에서 자기 나라의 핵개발을 반대하는 서방의 음모책동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그는 최근의 사태발전을 보면 서방이 이란의 평화적핵개발권리를 박탈하려 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말하였다. 이란은 평화적핵활동능력을 갖춘 핵국가로 되였으며 핵문제와 관련하여 리성적인 전략을 실시하고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유엔안보리사회의 개혁 주장

아르헨띠나외무상이 16일 유엔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유엔안보리사회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그는 안보리사회를 보다 많은 나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폭넓은 기구로 확대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라틴아메리카 및 까리브지역도 하나의 통일체로서 지역나라들의 견해일치에 기초하여 유엔에 자기의 후보들을 적극 내세워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피난민들의 귀향권리문제에 대해 언급

팔레스티나민족당국 수반 마흐무드 아빠스가 14일 한 담화석상에서 팔레스티나피난민들의 귀향권리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모든 팔레스티나인들은 자기의 조국에 함께 모여살수 있는 응당한 권리를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이 권리를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피난민문제는 이스라엘과의 회담에서 기본의제들중의 하나이라고 밝히고 그는 그러나 이스라엘당국이 피난민문제를 포함한 주요문제토의를 회피하려 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본사기자

세계인구

세계의 인구가 현재 약 70억명에 달하고있다. 3일 유엔이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이에 대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

중국에서

중국 상해시에서 농촌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지난 5년동안 시의 340여개 행정촌들에서 1 800㎞의 도로를 새로 건설하거나 개건하였으며 1 400여㎞의 강하천들을 정리하였다.

또한 마을주변들에 오수처리시설들을 꾸려놓고 280만㎡의 록지도 조성하였다.

한편 중국 감숙성에서 토지류실을 방지하고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해 지난 5년동안 496만무의 다락밭을 건설하였다. 성에서는 앞으로 5년동안에 750만무의 다락밭을 또 건설할것을 계획하고있다.

인디아에서

인디아에서 4월에 인플레률이 8.66%에 이르렀다.

이것은 그 전달에 비해 0.38% 감소된것으로 된다.

16일 이 나라 상업, 공업성이 이에 대해 밝혔다.

브라질에서

브라질에서 니켈철공장이 건설되여 16일에 조업하였다.

공장은 니켈광석자원이 풍부한 빠라주에 위치하고있다.

공장은 나라의 공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것이라고 한다.

아랍추장국련방에서

아랍추장국련방에서 지난해 국내총생산액이 그 전해에 비해 1.4% 증대되였다.

15일 이 나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사우디 아라비아의 리야드에 15일 녀성들을 위한 첫 대학이 설립되였다.

대학에서는 의학, 약학, 경영학을 비롯한 여러가지 과목들에 대한 교육을 주게 된다.

대학에는 실험실과 체육구락부, 병원, 기숙사 등도 갖추어져있다.

【조선중앙통신】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무인기를 배비하려고 획책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 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책동에 써먹을 무인기를 지역에 배비하려고 획책하고있다.

17일 미제7함대 사령관은 AP통신과의 회견에서 항공모함에서 리륙하거나 착륙할수 있는 무인기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배비될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인기가 앞으로 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미군의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것이라고 공언하였다.

빛을 쪼이면 자체로 수복되는 수지 개발

어느 한 나라의 과학자들이 최근 빛을 쪼여주면 손상된 부분이 자체로 수복되는 능력을 가진 수지를 개발하였다. 긴사슬분자구조로 된 일반수지와는 달리 짧은 분자로 이루어진 새로운 수지속에는 분자들을 련결하고 자외선을 흡수하는 작용을 하는 아연이온과 란탄이온이 첨가되여있다. 이로부터 새 수지에 흠집이 났을 때 자외선을 쪼여주면 손상된 부위가 열에 의해 녹으면서 자체로 수복된다.

【조선중앙통신】

경제형편에 비관

일본인들속에서 나라의 경제형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16일 일본내각부는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4월에 경제형편에 대한 주민들의 견해를 보여주는 소비자신용지수가 그 전달보다 5.5점 또 떨어져 련속 3개월째의 감소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의 폭압만행 규탄

수리아외무성이 15일 성명을 발표하여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폭압만행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이날 이스라엘군이 피난민들의 귀향권리를 보장할것을 요구하여 시위를 벌리던 팔레스티나인들에게 사격을 가해 2명을 살해하고 70여명에게 부상을 입힌것과 관련하여 성명은 그것을 범죄행위로 락인, 단죄하였다. 성명은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무시하고 인권유린행위를 계속 감행하고있다고 하면서 이번 만행에 대해 이스라엘당국이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조치를 취할것을 국제공동체에 호소하였다.

또한 이란외무상 알리 아크바르 쌀레히가 15일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살인만행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이날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티나령토와 강점한 수리아의 골란고원등지에서 피난민들의 귀향권리를 보장할것을 요구하여 시위를 벌리던 팔레스티나인들에게 사격을 가해 많은 사상자를 낸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을 국제법에 대한 란폭한 위반으로 락인하였다. 대중적인 항쟁만이 이스라엘의 폭압정치를 끝장낼수 있는 유일한 방도라고 하면서 그는 국제공동체가 이스라엘의 범죄행위에 대처한 조치를 시급히 취할것을 호소하였다.

본사기자

앙골라의 수도 루안다

항거에 부딪치고있는 내정간섭행위

지난 1일 전세계근로자들의 명절인 5.1절을 맞으며 많은 나라들에서 광범한 근로자들이 경축대회를 비롯한 다채로운 기념행사들을 진행하면서 즐거운 휴식의 하루를 보내였다. 그러나 스리랑카에서는 다른 광경이 펼쳐졌다.

이날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에서는 수만명의 사람들이 거리에 떨쳐나와 자기 나라의 《인권문제》를 거론한 유엔보고서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리였다.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수많은 근로자들이 국제적명절을 다채롭게 쇠고있는 때에 그들이 무엇때문에 집단적으로 시위를 벌리였는가.

문제는 유엔이 지난 4월 25일 미국의 사촉밑에 스리랑카에 대한 내정간섭적인 문건을 채택한데 있다.

그 내용을 보면 2009년에 스리랑카에서 《인권유린, 민간인학살행위》가 벌어졌다는것이다. 이 유엔보고서는 스리랑카민심의 격분을 자아냈다. 2009년으로 말하면 스리랑카에서 오랜 기간 지속되여오던 치렬한 민족분쟁이 종식된 해였다. 근 30년간에 걸쳐 계속되여온 민족분쟁이 끝장남으로써 스리랑카인민의 앞길에는 민족적단합과 화해, 평화와 안정, 사회경제적발전의 길로 나아갈수 있는 전망이 열리였다.

그런데 미국은 스리랑카에서의 정세발전을 두고 몹시 배아파하며 속이 뒤틀려 하고있다.

그것은 스리랑카정부가 분할하여 통치하라는 제국주의의 지배주의교리에 배치되는 정책을 실시하기때문이다. 스리랑카정부는 단합과 평화를 떠난 발전이란 있을수 없다는 립장을 고수하면서 지난 시기 분쟁으로 시달려온 자국의 북부와 동부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안정과 진보를 이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지난 2년간 스리랑카에서는 정치와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이전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성과가 이룩되였다.

분할통치, 지배와 예속을 추구하는 미국은 스리랑카에서의 긍정적인 정세발전을 심히 눈에 거슬려 하였다. 미국은 스리랑카가 내부분쟁으로 시달릴 때에는 한시바삐 《평화와 화해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목청을 돋구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스리랑카가 민족적단합과 사회적안정과 발전의 길을 걷자 심사가 뒤틀려 하고있다. 미국이 이번에 스리랑카의 《인권문제》를 걸고드는 유엔보고서채택을 사촉한것도 그때문이다. 미국의 그릇된 내정간섭적인 처사는 스리랑카정부의 반발을 샀다.

지난 4월 27일 스리랑카외무성은 미국의 조종에 의해 채택된 유엔보고서에 반격을 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유엔보고서가 스리랑카에 분렬을 조장할수 있다는것, 스리랑카정부는 현재 화해, 사회적복구, 재건, 발전을 최우선과제로 제시하고 피난민들을 다시 정착시키며 분쟁피해지역들에서 안정된 생활을 회복하고 수감자들을 석방하며 주택 및 하부구조를 재건하는 등 민족의 단합과 발전을 공고히 할수 있게 하는 과정을 점차적으로 확신성있게 진척시켜나가고있다는것, 그런데 이러한 시점에서 스리랑카의 내정에 대해 문제시하는 유엔보고서가 발표된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로 된다는것 등에 대해 지적하면서 그 리면에는 나라의 평화와 안정, 발전을 이룩하려는 스리랑카정부의 노력을 저애하고 분렬을 조성하기 위한 정치적목적이 깔려있다고 까밝히였다.

이러한 속에서 지난 2일 미국의 한 고위외교관리가 스리랑카에 날아들었다. 그가 스리랑카를 행각한 목적은 유엔보고서를 스리랑카정부에 납득시키고 그에 대한 인정을 강박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스리랑카정부는 미국의 강박에 굽어들지 않고 자기의 립장을 견지해나가고있다.

스리랑카에 대한 미국의 압력과 위협공갈은 비로소 최근에 시작된것이 아니다.

지난해 1월 26일 스리랑카에서 대통령선거가 진행되였다. 선거에서 마힌다 라자팍사가 대통령으로 다시 선거되였다. 이전부터 라자팍사대통령을 마뜩지 않게 여겨오던 미국은 겉으로는 그의 당선을 《축하》하는척 하면서도 그 무슨 《부정선거》에 대해 운운하며 그와 관련한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고 스리랑카에 압력을 가하였다. 사실 미국은 다른 대통령후보자가 당선되기 바랐었다. 그러나 대통령선거결과는 미국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스리랑카선거위원회는 지난해 1월 27일 현대통령 라자팍사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였다고 공식발표하였다. 한편 스리랑카국회는 미국이 보란듯이 대통령의 임기제한제를 철폐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헌법개정안을 채택하였다.

남의 집 잔치에 감놓아라 배놓아라 하다가 라자팍사의 대통령재선과 그의 임기연장조치로 메사해진 미국은 그에 대한 밸풀이로 스리랑카에서의 그 무슨 《인권침해문제》를 내정간섭의 구실로 내든것이다.

그러나 스리랑카정부는 그에 대해 뜨끔해하지 않고있다.

스리랑카정부 대변인은 우리는 소수민족이고 작은 경제국가이지만 대외적인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것이다, 우리 나라는 주권국가로서 자기의 리익을 위한 일을 할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스리랑카에서는 수많은 군중들이 미국의 내정간섭행위를 반대하는 항의투쟁을 벌리였다.

스리랑카의 내부문제는 이 나라 정부와 인민이 알아서 결정하고 처리할 일이다. 여기에 다른 그 누구도 간섭할 권리가 없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미국이 국제법과 국제관계원칙에 배치되게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지배주의정책을 강화할수록 그것은 자주를 지향하는 진보적인민들의 더 큰 반항에 부닥치게 될것이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전횡적인 내정간섭정책을 걷어치워야 한다.

본사기자 채일출

‖ 세계상식 ‖

군중발전소

일명 군중발전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그들의 몸무게를 리용하여 전력을 얻는 발전시설을 말한다. 경기장이나 무도장, 지하철도역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서나 압력에 의해 에네르기가 발생한다.

사람이 방안에서 왔다갔다 하기만 하여도 60W짜리 전등 2개를 켤수 있으며 2만 8 527보를 걸으면 기관차를 움직일수 있을 정도의 전력을, 8 400만보를 걸으면 우주비행선발사에 필요한 에네르기도 얻을수 있다고 한다.

군중발전소는 기계적운동이 전기로 전환될수 있다는 원리에 기초하고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장소에 푹신푹신한 바닥재를 깔아놓고 그속에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가동하는 전기전환장치를 설치하면 이 장치가 사람들의 움직임을 전류로 전환시킨다고 한다. 이미전에 사람이 의자에 앉기만 하면 4개의 발광소자에 불이 켜지도록 하는 발명품이 나왔다.

어느 한 나라에서는 이 기술을 더욱 개량하여 2050년까지 경기장들과 지상, 지하의 철도역들 등에 사람들의 압력에 의해 가동하는 소형군중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세계최대의 철광산

브라질의 북부 빠라나주에는 세계최대의 철광산이 있다. 이 로천철광산의 년간생산량은 1억t이상에 달한다.

이 광산은 우연한 계기에 발견되였다고 한다.

1967년에 한 지질탐사대가 직승기를 타고 이 지역 상공을 날고있었다. 그들은 키큰 나무들이 빼곡한 숲속에서 잡관목들만 성글게 자라고있는 곳을 발견하였다.

공중에서 내려다보니 마치 사람의 벗어진 머리웃부분을 보는것 같았다.

직승기에 실은 실험계기들도 지면의 자기마당이 매우 강하다는것을 보여주었다.

후날 지질탐사를 통해 이 지역이 70여억t의 철광석이 묻혀있는 세계최대의 철광석매장지라는것이 밝혀졌다.

이곳 철광산의 흙을 손에 쥐여보면 마치 쇠덩이를 드는것처럼 묵직한감이 느껴진다고 한다.

철광석의 품위는 매우 높은데 최고 66%이다. 철광석품위가 20%아래인 흙은 박토로 처리되여 도로를 닦는데 쓰인다고 한다.

본사기자

ㄱ-110953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26-2312, 편집국 326-1328, 론설원실 326-5428, 당력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공업부 326-0263, 농업부 326-5628, 과학문화부 321-4628, 조국통일부 321-4882, 국제부 326-4728, 사진보도부 326-0712, 특파기자부 321-4328. 편집위원회